

2. 기본구상

- 2.1.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기본계획
- 2.2. 계획의 목표 및 지표
- 2.3. 공간구조 및 생활권

2.1.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기본계획

2.1.1. 시민참여단

가. 개요

1) 의의

가) 배경 및 목적

❖ 시민중심의 계획

- 도시가 복잡화, 다양화 됨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주도로 다양한 공간수요 등에 효과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음
- 도시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비전과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시민 중심의 계획을 수립함

❖ 시민참여형 계획

-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의 적극적 대처에 제약이 있음
- 지역사회 중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계획을 수립함

❖ 커뮤니티중심의 계획

-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기반시설 정비 등 물리적 개발 위주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문화적 환경 개선으로 변화됨
- 개성 있는 지역사회문화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는 공간관리 정책이 필요함

◆ ‘시민참여단’ 이란

※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수립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숙의방식의 합의회의를 참석하는 145명의 시민대표임

※ 참여분야는「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의 미래비전, 목표, 분과별 핵심이슈와 분야별 추진전략을 설정함



시민제안서 전달식

나) 운영 범위

❖ 시민참여 도시계획 범위

- 기간 : 2015년 6월 ~ 2015년 12월 (5개월)
- 방법 : 시민참여단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용(숙의방식의 합의회의)
- 내용 : 대구의 미래 비전, 미래상과 목표·전략선정 및 제안서 전달

❖ 활동내용

- 미래 대구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 및 숙의 과정을 거쳐 선정
-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해 사전 워크숍과 시민참여단 의견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

❖ 기대효과

- 시민 제안을 통한 대구플랜 및 대구도시기본계획 기초자료 제공
-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의 인식전환 계기 마련
- 대구형 시민참여 도시계획 확산 기반 구축

2)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 총괄 MP, 시민참여단(5개 분과), 전문가 자문단, 실무지원팀으로 구성



나) 시민참여단 주체별 역할

❖ 총괄 MP

- 총괄 MP는 시민참여단을 총괄하는 자
- 시민참여단 참여를 신청한 시민 선정, 대구시와 시민 간 소통, 시민참여단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 등 시민참여단 자문에 대한 총괄 진행함

❖ 시민참여단

- 시민참여단은 일반시민과 퍼실리테이터로 구성하여 대구의 미래비전과 핵심이슈 등에 대하여 토의하고 결정함
- 평등한 발언기회를 부여하여 의견의 편중을 방지함
- 도시·주택, 교통, 경제·산업·일자리, 문화·복지·교육·관광, 환경·안전 등 5개 분과로 구분, 분과별 2~4개 팀으로 구성함(1팀 당 시민 12~13명, 퍼실리테이터 1명)
- 퍼실리테이터는 분과별 토론회의 진행 및 시민의견 정리·회의록 작성·운영 지원

❖ 전문가 자문단

- 분 과 : 시민참여단 운영·회의진행·내용에 대한 자문 및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대구의 미래비전과 핵심이슈 등에 대한 조정,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분과별 자문을 담당함
- 총괄팀 : 총괄 MP와 각 분과별 대표 1인으로 구성하고, 총괄 MP 지원 및 분과별 의견을 종합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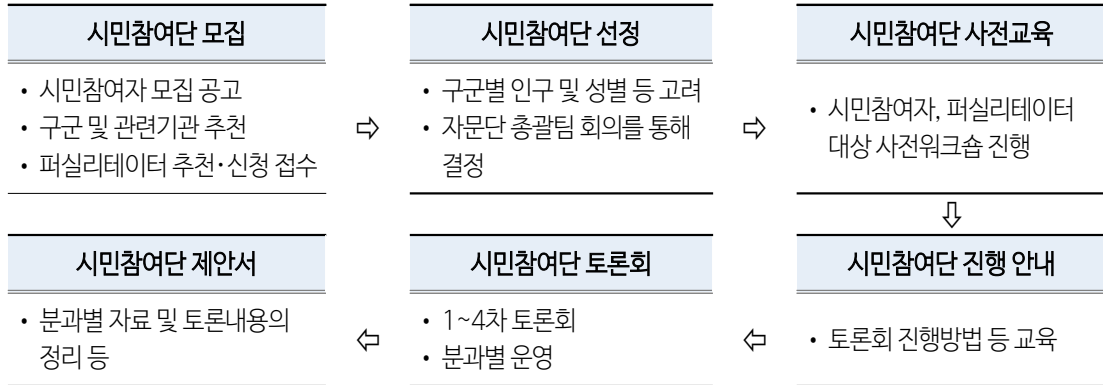
❖ 실무지원팀

- 실무지원팀은 회의진행, 행정지원, 정보제공 등 시민참여단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문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담당함
- 실무지원팀 구성은 대구시 도시계획과, 대구경북연구원 실무자로 구성함

다) 사전 워크숍

- 대 상 : 시민참여자 및 퍼실리테이터
-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27일,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인원 : 160명 참석(시민참여자 145명, 퍼실리테이터 15명)
- 내 용
 - 시민참여자에게 회의 진행 및 시민참여단 의의에 대해 교육
 - 퍼실리테이터의 회의진행방법, 회의록 작성, 자료 기록방법 등 교육

[표 2-1-1] 시민참여단 구성 및 활동 흐름도



라) 시민참여단 추진경과

회 차	일 시	장 소	주 요 내 용	비 고
사전워크숍	2015. 8. 27.(목)	대구경북연구원 18층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도시기본계획 주요내용 • 시민참여단 역할 및 진행방식 소개 	전문가회의 (7.28, 8.21)
1차 토론회	2015. 9. 1.(화)	한국패션 산업연구원 패션디자인개발 지원센터 2층 대공연장	【대구 미래비전을 이야기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식 • 도시기본계획과 대구플랜 • 시민참여단의 역할과 의의 • 2020 도시기본계획 주요내용 • 시민참여단 역할 및 진행방식 소개 • 현재 진단토론 : 대구시의 좋은 점과 개선할 점 • 미래상 토론 : 2030 대구의 미래상 및 비전 	전문가회의 (9.4)
제2회 대구 시민원탁 회 의	2015. 9. 7.(월)	대구시민체육관	【시민이 꿈꾸는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토론 : 2030 도시기본계획을 위한 대구 미래상 발굴 • 제2토론 : 미래상 실현을 위한 세부전략 수립 	
2차 토론회	2015. 9. 9.(수)	한국패션 산업연구원 패션디자인개발 지원센터 2층 대공연장	【대구의 발전목표를 이야기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별 진단토론 : 분과별 대구의 문제와 개선점 • 발전목표 토론 : 분과별 발전목표 논의 및 도출 	전문가회의 (9.11)
3차 토론회	2015. 9. 16.(수)		【대구의 전략과 이슈를 이야기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전략 토론 : 분과별 목표실현을 위한 전략 도출 • 이슈 토론 : 분과별 이슈 제안 	전문가회의 (9.18)
4차 토론회	2015. 9. 23.(수)		【미래 대구 발전방향을 정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론 : 대구 비전(미래상), 분과별 발전목표, 전략, 이슈에 대한 종합토론 • 발전방향 선정 : 미래 대구의 발전방향 결정 	전문가회의 (10.6)
전 달 식	2015. 10. 8.(목)	대구시청 10층 대강당	【경과보고 및 전달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단 추진경과 보고 • 시민제안서 발표 및 전달식 	

나. 비전과 미래상

❖ 비 전

“시민이 행복하고 일자리와 문화가 풍부한 열린 도시, 대구”

❖ 미래상

-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바라는 “시민행복도시”
- 시민 누구나 일하기 좋고,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일하기 좋은 “기회창출도시”
- 다양하고 체계적인 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시민 모두가 문화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
-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을 위해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열린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도시”

다. 분과별 발전목표 및 전략

1) 발전목표

❖ 도시·주택분과 시민참여단

토론회 시민의견	발전목표	실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구별 특성화된 주택 공동체 형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커뮤니티의 지역별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 활용 커뮤니티 공간 확대 • 마을단위 환경개선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 지역의 재생을 통한 발전(구도심과 도심지 사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 잡힌 도시재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지역 노후 생활 인프라 개선 • 조화로운 주거지 재생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를 접목한 친환경 에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에코도시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에너지주택 건립 확대 • 환경신기술 적용 도시 인프라 구축

❖ 경제·산업·일자리분과 시민참여단

토론회 시민의견	발전목표	실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대구 안경·섬유·의료 산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산업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형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 지역 특화산업과 IT산업과의 연계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전문학교를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맞춤형 교육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서비스 인력양성 교육기관 설립 • 연계형 직업학교의 맞춤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동강 물을 이용한 경제적 부와 일자리를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중심의 부가가치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학과 중소기업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소비활성화 증진

❖ 문화·복지·교육·관광분과 시민참여단

토론회 시민의견	발전목표	실천전략
• 문화관광지식이 풍부한 도시	• 풍요로운 문화·관광·지식 도시 구축	• 도시자원연계 관광인프라 확충 • 대구 문화관광 콘텐츠 진흥 기구 마련
• 복지 세분화	• 시민 공감형 복지 실현	• 시민 공감형 마을 만들기 추진 • 맞춤형 복지 실효성 증대
• 범죄 없는 도시	• 안심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	• 매스미디어 활용 안전의식 고양 • 범시민 안전아카데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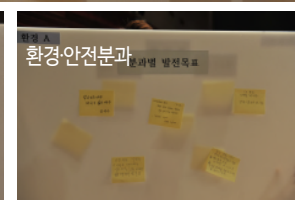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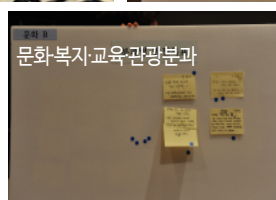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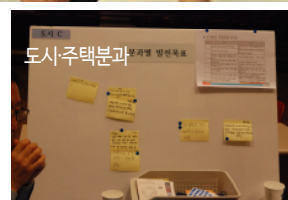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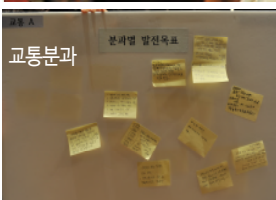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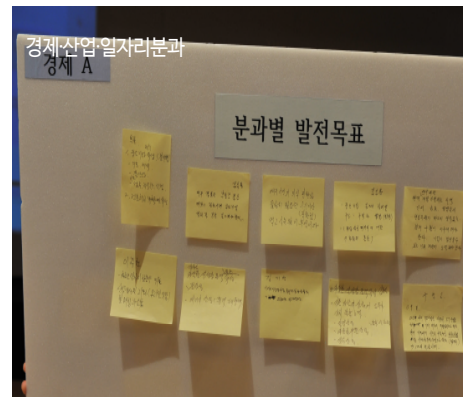
❖ 교통분과 시민참여단

토론회 시민의견	발전목표	실천전략
• 대중교통의 원활화	•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	• 대중교통카드 호환성 확대 • 대중교통 교통법규이행 증진
• 주차 공간의 확충 필요	• 다양한 도시주차공간 확대	• 유연한 주차공간 활용 확대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교통 혼잡의 해소방안 필요	• 교통혼잡지역 개선 대책 마련	• 도시경관을 고려한 교통인프라 조성 • 도시교통체계 다변화 유도

❖ 환경·안전분과 시민참여단

토론회 시민의견	발전목표	실천전략
• 자연휴양림	• 지속적 환경투자과 맞춤형 안전 관리	• 도시녹지의 지속적 확대와 관리 • 지역맞춤형 도시재난 사전대응체계 구축
•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 시민 환경의식 함양	• 자율적 선진 시민의식 제고 • 시민행복 프로그램 확대
• 음식물 쓰레기	• 자원순환 신기술 개발·확대	• 자원순환 도시계획 추진 • 친환경적 도시쓰레기 처리 확대





2.1.2. 시민원탁회의

가. 개요

- 일 시 : 2015. 9. 7(일) 19:00
- 장 소 : 대구시민체육관
- 토론주제 : 2030년 도시기본계획 「시민이 꿈꾸는 대구」
- 참 석 : 487명(일반시민 435명, 퍼실리테이터 52명)

◆ 시민원탁회의란

- ※ “토론을 통해 시민의 참된 의견을 구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며 시민이 시정에 참가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으며,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토론과 의견을 통해 현장투표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 참여자들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됨
- ※ 2014년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주제로 2018.8월까지 13회 운영되고 있음



나. 주요내용

1) 시민들이 꿈꾸는 대구의 미래상

❖ 기반시설 분야

- 1순위 : 골고루 함께 일하는 도시 대구
- 2순위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구의 문화관광
- 3순위 : 향토기업(중소기업, 디자인완제품, 규제완화, 화장품)살리는 대구
- 4순위 : 공원 많고 잘 정돈된 깨끗한 도시 대구

❖ 비 기반시설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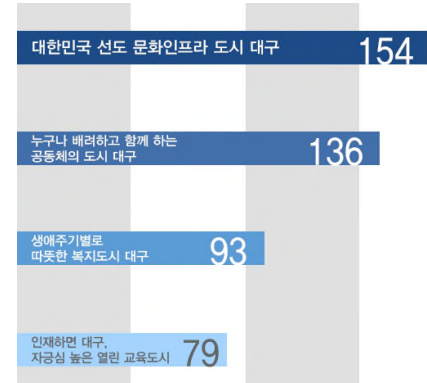
- 1순위 : 대한민국 선도 문화인프라 도시 대구
- 2순위 : 누구나 배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도시 대구
- 3순위 : 생애주기별로 따뜻한 복지 도시 대구
- 4순위 : 인재하면 대구, 자긍심 높은 열린 교육도시

시민원탁회의 개최 결과(1토론)

① 시민들이 꿈꾸는 대구의 미래상-물적



② 시민들이 꿈꾸는 대구의 미래상-비물적



2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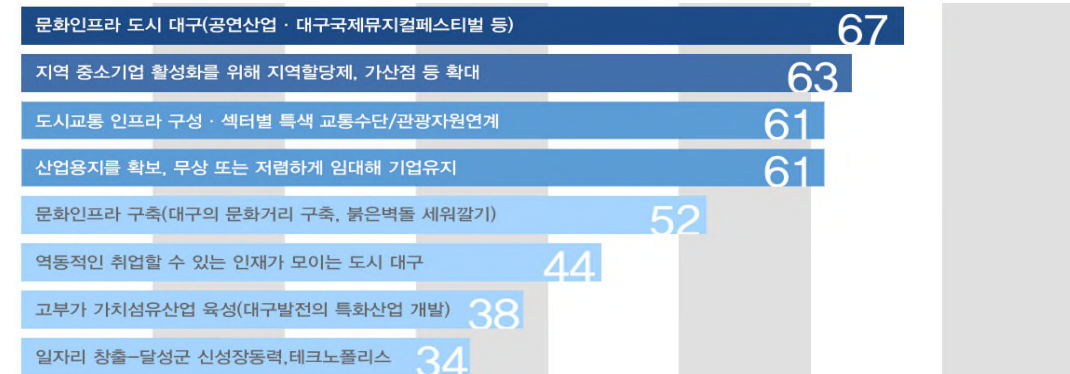
2) 미래상 실현을 위한 세부전략

❖ 주요내용

- 1순위 : 문화인프라 도시 대구(공연산업·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등)
- 2순위 :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할당제, 가산점 등 확대
- 3순위 : 도시교통 인프라 구성 : 섹터별 특색 교통수단 / 관광자원 연계
- 4순위 : 산업용지를 확보, 무상 또는 저렴하게 임대해 기업유치

시민원탁회의 개최 결과(2토론)

① 미래상 실현을 위한 세부전략



2.1.3. 대구PLAN 2030

❖ 대구PLAN 성격(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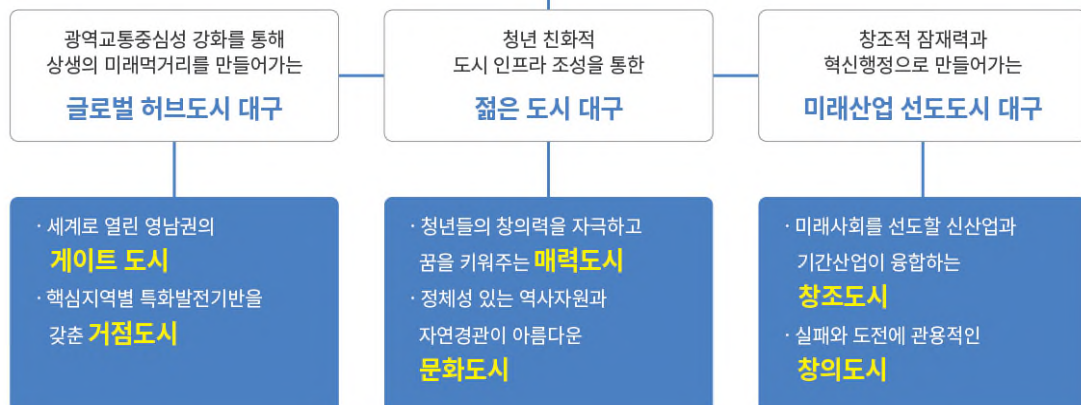
- 대구PLAN은 대구도시기본계획의 상위개념으로 작동하는 계획임
- 비법정계획으로서 대구PLAN에서 제시하는 자유롭고 포괄적인 상위개념을 법정 계획인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해 내는 방식으로 공존함
- 대구PLAN은 비전 및 목표 설정, 전략과 실현방안, 시민·전문가·공공의 의견 수렴 등의 내용을 포함함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공간구조 구상 및 생활권계획, 부문별 계획 등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명시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함
- 이 두 계획은 2030년 대구의 미래를 그린다라는 공통과제 속에서 서로 다른 영역을 빈틈없이 채워줌으로써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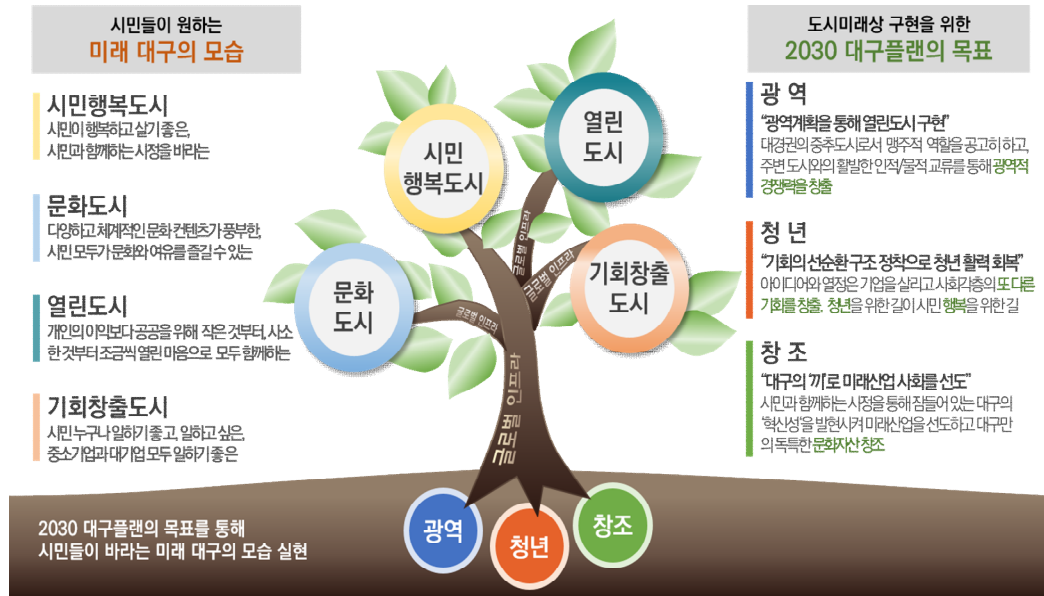
❖ 미래상

미래세대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미래사회 다양한 위기와 기회가 준비된 도시

시민이 행복하고 일자리와 문화가 풍부한 열린 도시, 대구



❖ 비전의 핵심가치



2

기본구상

❖ 비전의 실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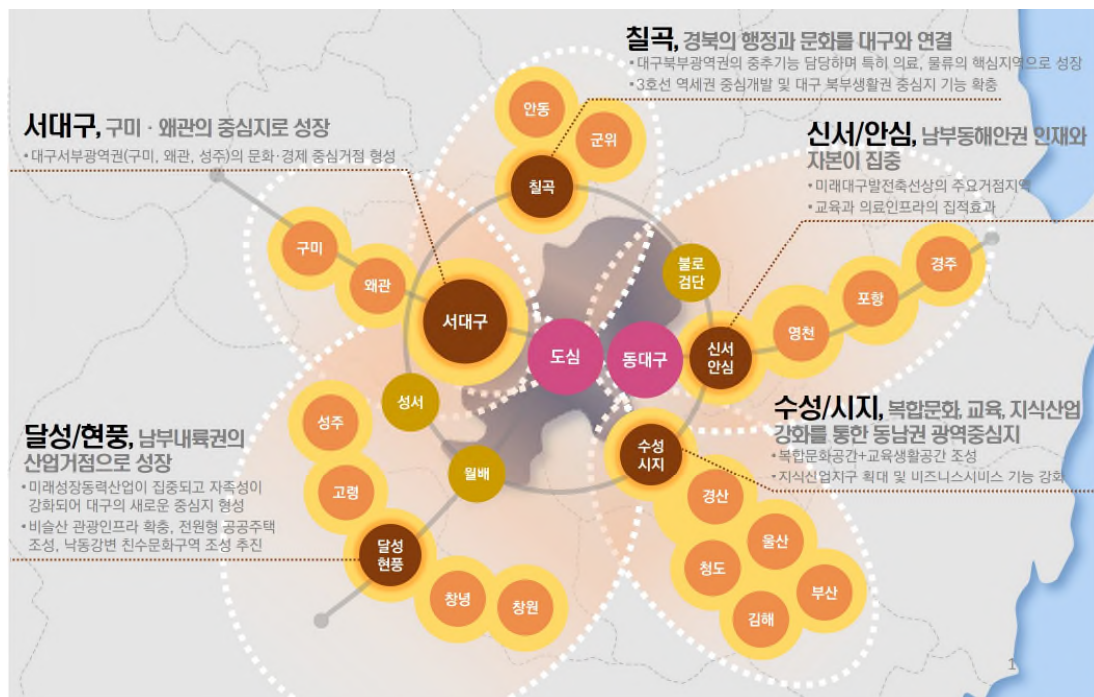


❖ 미래 대구 공간구상

- 서대구는 구미·왜관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대구 서부광역권(구미, 왜관, 성주)의 문화·경제 중심거점을 형성함
- 북구 칠곡지역은 경북의 행정과 문화를 대구와 연결시켜 대구 북부광역권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며, 특히 의료·물류의 핵심지역으로 성장, 도시철도 3호선 역세권 중심개발 및 대구 북부생활권 중심지 기능의 확충
- 신서/안심지역은 남부 동해안권 인재와 자본이 집중되어 교육과 의료 인프라의 집적 효과 창출
- 수성/시지는 남부권의 광역중심지로서 녹색공간과 복합문화 인프라가 풍부한 교육·지식산업 거점으로 육성
- 달성/현풍은 남부내륙권의 산업거점으로 성장하여 미래성장동력산업이 집중되고 자족성이 강화되어 대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형성

※ 주요거점별 특징

- 광역연계거점 : 광역중심과 광역연계도시를 잇는 중간역할을 하며, 도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함
- 성장거점 : 현황과 추세는 주요 거점으로 칭하기 미흡하나, 미래 대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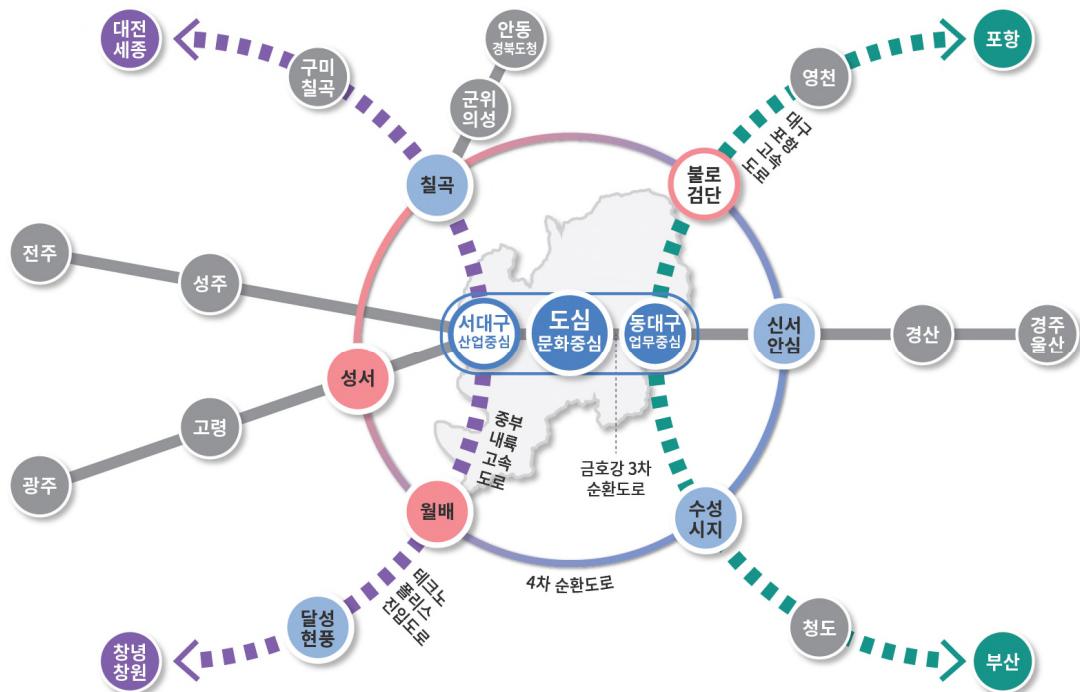
[그림 2-1-1] 미래 대구의 공간구상

❖ 도시공간 구조 및 기능 조정 방향

- 도시 간 연계성이 없는 중심지 구상에서 탈피함
 - 주변 도시기능과 인접중심지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간구조를 개선
 - 도시적인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 도시 전략을 수립
- 신규개발지에 대응하는 도시위계로 설정함
 -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능 및 공간체계를 제시
 - 수성알파시티 등 개발계획에 대응한 도시적 위계를 재정립
- 중심성만 강조된 도시공간 기능의 재정립 필요함
 - 도시 중심성에 대한 다각화된 공간위계의 설정이 필요
 - 신규개발지와 더불어 전략적인 중심지 기능을 재정립
 - 지역편차 해소를 위하여 균형 있도록 기능을 배분함
- 현실적 도시기능과 계획목표 설정과의 괴리 해소가 필요함
 - 대학병원 이전사업 등을 고려하여 인접도시와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 기능을 배분

❖ 중심지체계

- 광역권 도시와 상생을 위하여 3개의 광역중심(도심, 동대구, 서대구)에 4개의 광역 연계거점(칠곡, 신서·안심, 수성·시지, 달성·현풍)과 3개의 지역거점(성서, 월배, 불로·검단)으로 구성함



[그림 2-1-2] 2030 대구의 중심지체계

❖ 공간기능의 배분

- 광역중심, 광역연계거점, 지역거점의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공간 기능을 배분함

[표 2-1-2] 공간기능의 배분

구 분		설정근거	핵심 공간기능
광역 중심	도 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능의 중심 • 동성로, 근대거리 등 문화관광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상업 및 문화관광 중심기능 • 광역 행정업무 중심기능 • Vintage Town(원도심 활성화사업)조성
	동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교통의 중심지 • 동대구역 복합역사개발로 상업중심지 • 동대구로 주변 업무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E 산업 및 업무중심 기능 • 광역고속교통 중심기능 • 청년창업 중심지 기능
	서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철도 구축 • 노후산단 고도화 사업 • 금호강 기반시설 이적지 • 도시 관문적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문적 산업중심지 기능 • 수도권, 구미 등과 연계 거점 • 광역교통의 중심지
광역 연계 거점	칠 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경북도청이전지), 칠곡과 교통축에 입지 • 택지개발을 통한 생활권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교육 및 서비스 중심지 • 생활권지원 기능 • 상업·업무기능
	신서·안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산, 영천, 포항과 연계된 주요 교통축에 입지 • 신서혁신도시 입지 • 도시철도 1호선 연장계획 • 안심뉴타운(구 연료단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 및 의료산업 중심지 • 유통중심기능 • 생활권지원 기능
	수성·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산도심, 부산, 양산과 연계된 주요 교통축 입지 •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계획 • 대구스타디움, 수성알파시티 등 전략 사업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식기반 및 물류서비스 중심지 • 문화·여가 중심지 조성
	달성·현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 1호선 연장 •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단 조성 • 비슬산, 낙동강 자연자원 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연구중심지 • 첨단산업, 생산기능 • 레포츠, 휴양기능
지역 거점	성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서산업단지 및 계명대학교 입지 • 대규모 주거지 및 근린상권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및 생활권 지원 기능 • 교육거점
	월 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주거지 및 근린상권 입지 • 현풍신도시 연계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및 생활권 지원 기능 • 지역교통거점 조성
	불로·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단들(금호워터폴리스), K2부지 후적지 개발 • 대구포항고속도로 • 이시아폴리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및 생활권 지원 기능 • 첨단산업중심지 • 대규모 문화공연중심지

2.2. 계획의 목표 및 지표

2.2.1. 도시 여건변화와 과제

가. 여건변화

❖ 전 지구적 기후변화

- 화석연료 사용 및 온실, 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우려가 고조됨
-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 수해 빈발로 인하여 하천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함

❖ 거대 경제권 중심의 신개방 경제 가속화

- 전방위적인 FTA 추진 확산, 경제 블록화 등으로 글로벌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됨
- 세계화·개방화의 진전으로 지역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어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

❖ 인구감소 및 고령화

- 절대인구의 감소로 연령대별 인구구조가 역사다리꼴로 변화됨
-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경제성장시스템과 산업, 기업 및 개인의 행동양식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됨

❖ 환경, 문화 등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 환경관련 국민의식 전환, 소득 증대 등에 따른 소비 형태 변화로 공간이용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됨
-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기반시설의 배려가 필요함

❖ 교통·생활 혁명으로 U-Green 통합형 시대 전개

- 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 및 정보통신기술이 연계된 유비쿼터스 도시로 변화됨
- 고속철도, 스마트 하이웨이 등 저탄소 고속교통망 구축으로 생활패턴이 변화됨



나. 국가 도시정책

❖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3. 6.)하여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지자체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재생사업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함

❖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체계 확립 및 살고 싶은 도시공간 구현

- 복잡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민참여 활성화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서비스로 개선함
-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도시민 여가공간 확충, 지속가능한 성장관리방안 도입 등 살고 싶은 도시공간을 구현함

❖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U-방범·방재·교통 등 U-City 기반의 국가안전망 구축을 지원함
- 기후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재해 취약성 분석, 방재지구 지정 등 재해예방적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함

❖ 건축물 안전관리 및 건축규제 개선

- 내진기준 강화 및 기존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유도를 통한 구조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함
- 예방중심의 화재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함

❖ 녹색건축 활성화 및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

-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한 녹색건축을 구현함
- 지역별 경관관리 역량 강화, 한옥 확대 및 근대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함



다. 계획의 과제

❖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 간의 협력관계 강화

- 국내도시 간의 경쟁에서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간의 협력관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국제적인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구의 특화된 발전기반을 중심으로 창조경제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 간 협력체계를 모색함

❖ 청년인구 정착으로 도시 활력 증진

- 지역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자리와 정주생활환경 조성 등 청년 친화적 도시로 발전이 필요함
- 청년 친화적 도시인프라 및 산업구조 구축, 개성 있는 지역 문화 육성을 통하여 도시 활력 증진 방안을 모색함

❖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통하는 도시 구축

- 도시의 다양화·복잡화로 인하여 계층간·지역간 갈등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갈등 발생 원인이 상호간의 소통 및 배려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통하고 포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모색함

❖ 다양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산업간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신성장 산업 창출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 지식산업 등 융·복합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및 다양한 도전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처

- 의료 서비스의 향상에 따른 평균 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인구변화특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체계적 정비 등 고령화 사회 대처방안을 모색함



2.2.2. 미래상

가. 현황분석

1)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상

가) 시민원탁회의

❖ 시민원탁회의의 미래상

- 2015년 9월 시민들이 꿈꾸는 대구의 미래상, 미래상 실현을 위한 세부전략 모색을 주제로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였음
- 시민원탁회의에서 도출된 미래상의 Key Word는 일자리, 문화·복지, 생활환경, 교육이며, 제시된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일자리 관련 내용이었음

[표 2-2-1] 시민원탁회의에서의 미래상

순 위	기반시설 분야	비기반시설 분야
1	• 골고루 함께 일하는 도시대구	• 대한민국 선도 문화 인프라 도시
2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구의 문화관광	• 누구나 배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도시
3	• 향토기업을 살리는 대구	• 생애주기별로 따뜻한 복지도시
4	• 공원 많고 잘 정돈된 깨끗한 도시 대구	• 인재하면 대구, 자긍심 높은 열린 교육도시

❖ 시민원탁회의의 세부전략

- 미래상의 실현을 위한 세부전략으로 문화·교통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활성화가 제시되었음

[표 2-2-2] 미래상에 따른 세부전략

순 위	세부전략
1	• 문화인프라 도시대구(공연산업 등)
2	•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할당제, 가산점 확대
3	• 도시교통 인프라 구성(섹터별 특색교통수단, 관광자원 연계)
4	• 산업용지를 확보, 무상 또는 저렴하게 임대해 기업 유치

나) 시민참여단

- 2015년 6월부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5차례 회의와 자문을 거쳐 2015년 10월에 비전, 미래상, 발전목표 및 전략이 포함된 시민참여단 제안서를 대구시에 전달하였음

❖ 미래상

- 시민참여단이 제안하는 2030년 대구의 비전은 “시민이 행복하고 일자리와 문화가 풍부한 열린도시, 대구”임
 -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바라는 “시민행복도시”
 - 시민 누구나 일하기 좋고,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일하기 좋은 “기회창출도시”
 - 다양하고 체계적인 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시민 모두가 문화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
 -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을 위하여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열린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도시”

❖ 발전목표 및 전략

- 5개 분과의 발전목표는 커뮤니티의 지역별 특성화, 지역특화산업 지원, 문화관광지식 도시건설, 대중교통 편의성 강화, 환경투자과 맞춤형 안전관리 등이 제시되었음

[표 2-2-3] 시민참여단에서 제안한 발전목표 및 전략

분과	목표	추진전략
도시주거	• 도시커뮤니티의 지역별 특성화	• 공공시설 활용 커뮤니티 공간 확대, 마을 단위 환경개선사업 확대
	• 균형 잡힌 도시재생	• 낙후지역 노후 생활인프라 개선, 조화로운 주거지 재생 유도
	• 스마트 에코도시	• 친환경 에너지주택 건립, 환경신기술 적용 도시인프라 구축
경제산업일자리	• 지역 특화산업 지원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특화산업과 IT산업 연계
	• 일자리 맞춤형 교육기능	• 지식서비스 인력양성 연계형 직업학교
	• 지역자원 중심의 부가가치 극대화	• 지역대학과 중소기업 연계, 지역내 소비 활성화
문화복지교육관광	• 문화관광지식 도시	• 도시자원 연계 관광인프라, 문화관광 콘텐츠
	• 시민공감형 복지	• 시민공감 마을 맞춤형 복지
	• 안심하고 쾌적한 도시	• 안전의식 고취, 시민 안전 아카데미
교통	• 대중교통 편의성	• 교통카드 호환, 교통법규이행 증진
	• 도시주차공간 확대	• 유연한 주차공간 확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교통혼잡 지역 개선	• 경관을 고려한 인프라 확충 교통체계 다변화
환경안전	• 환경투자과 맞춤형 안전관리	• 녹지의 지속적인 확대, 도시재난 사전대응
	• 환경의식 함양	• 시민의식 제고, 시민행복 프로그램 확대
	• 자원순환 신기술 개발 확대	• 자원순환 도시 친환경적 도시쓰레기 처리

2) 대구시 도시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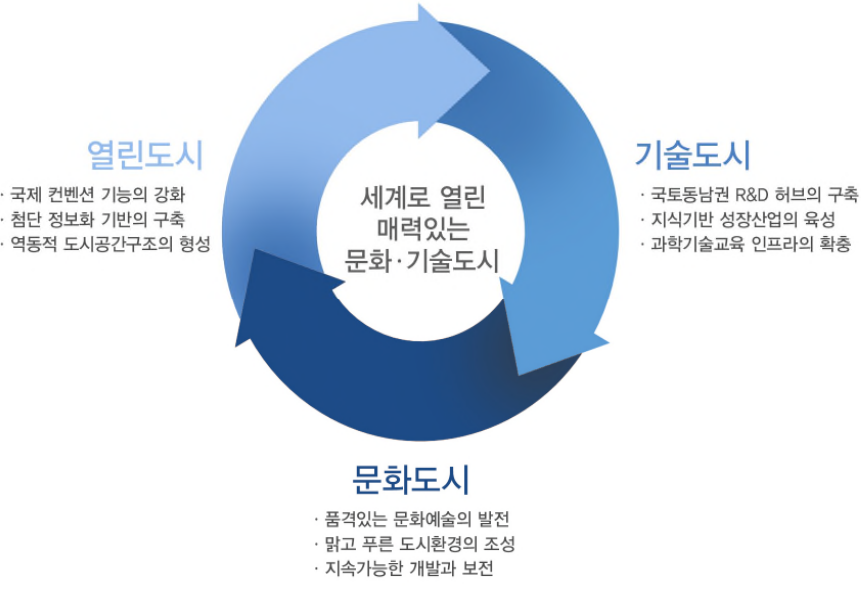

가)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

❖ 주요내용은 일자리와 삶의 질의 향상임

- 지금까지 5차례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서 제시된 도시의 미래상은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관리도시, 국제도시, 지식기반 산업도시 등을 제시하였으며, 공통된 의미는 일자리 창출이 있음
- 또한, 쾌적한 도시, 환경도시, 문화도시, 친환경 녹색도시와 같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포함하고 있음

[표 2-2-4]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혁별 미래상

구 분	미 래 상
1984년	<div>  국가 중추기능을 보유한 국제적 거대도시 </div> <div>  영남지역의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 </div> <div>  대구 대도시 생활권의 중심도시 </div> <div>  산업구조가 균형있는 안정적 성장도시 </div> <div>  5개 지역중심산업의 선형다핵도시 </div> <div>  자연환경과 생활편익시설의 쾌적하고 편리한도시 </div>
1992년	<div>  1992 도시기본계획 미래상 </div> <div> --- 동남경제권의 중심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지역 경제권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중추관리도시 · 전국 고속도로망의 중심지로서 전국을 관장하는 유통산업의 중심도시 · 동남해안공업벨트지역의 선형적 중심지로서 임해공업의 중추관리지원도시 </div> <div> --- 민주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및 자본집약형 첨단기술산업 등으로 산업구조가 안정된 성장도시 · 독자적인 생활권을 영위하는 광역대도시권의 중핵도시 ·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등 계층적 공간구조가 형성된 균형있는 도시 · 문화, 휴양시설의 공급이 충분하고 교통, 편익시설이 확충된 편리한 도시 ·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생활환경이 향상된 쾌적한 도시 · 행정, 문화 등 참여기회가 확대된 민주시민을 위한 도시 </div> <div> --- 동해안 시대의 중추관리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중추관리기능을 보유한 개방된 국제적 거대도시 · 정보, 통신, 지식산업 등 정보서비스 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국제적 선진도시 · 동해안 시대의 개막과 함께 중추관리기능을 담당하는 중추도시 </div>

구 분	미 래 상
1997년	<div data-bbox="483 332 1315 936">  <p>1997 도시기본계획 미래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남경제권을 선도하는 국가 중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경제권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적인 거점도시 · 고속도로 중심지로서 전국을 관장하는 물류시설의 중심도시 · 동·남임해공업 벨트의 선형적 중심지로서 지원 관리하는 배후도시 살기 좋은 다음세대를 위한 환경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남지역 선비정신을 시민정신으로 계승하는 긍지높은 시민도시 · 지방화 시대에 참여기회가 보장되는 민주도시 · 전통적인 문화, 예술을 계승 발전하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살기좋은 환경도시 · 산업구조가 안정되고 고용기회가 보장되는 성장도시 · 교육문화, 사회복지, 의료보건시설이 충만한 복지도시 첨단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선진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중추관리기능과 국제적 교역기능을 보유한 개방도시 · 정보, 통신, 지식산업과 첨단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선진도시 · 환태평양시대의 중추관리기능을 담당하는 선진화된 국제도시 </div>
2007년	<div data-bbox="483 952 1339 1547">  <p>2007년 도시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린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컨벤션 기능의 강화 · 첨단 정보화 기반의 구축 · 역동적 도시공간구조의 형성 기술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동남권 R&D 허브의 구축 · 지식기반 성장산업의 육성 · 과학기술교육 인프라의 확충 문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격있는 문화예술의 발전 · 맑고 푸른 도시환경의 조성 ·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 <p>세계로 열린 매력있는 문화·기술도시</p> </div>
2010년	<div data-bbox="451 1565 1377 2038">  <p>2010년 도시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로 열린 지식기반 산업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우수인력이 중심이 된 연구개발(R&D)중심의 과학기술도시 · 지역전통산업과 문화를 접목하는 문화산업도시 동아시아의 교육학술 중심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교육학술도시 · 다양성과 개성이 발휘될 수 있는 창조도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도시 · 지역의 전통과 함께하는 매력적인 문화도시 <p>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p> </div>

나) 시정방향

❖ 시정 방향의 주요내용은 일자리, 삶의 질, 소통으로 구성

- 시정 방향은 대구시를 유지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한 내용으로 대구시의 모든 생활이 포괄된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시정비전은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임
 - 시민행복이란 「모든 정책의 판단에 “시민”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 발상으로 작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나타냄
 - 창조대구란 「대구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창조적 혁신을 통해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대구, 다시 도약하는 대구건설을 지향」함
- 시정목표는 창조경제, 문화융성, 안전복지, 녹색환경, 소통협치를 지향하고 있음
- 실천전략으로 대구경제 체질혁신과 상생협력을 통한 남부권 광역경제공동체 건설, 소통과 협치 강화로 시정혁신 확산 등을 제시하고 있음

[표 2-2-5] 연도별 대구시 시정방향



자료 : 대구광역시, 시정백서, 해당년도



나. 기본방향

❖ 미래비전은 현황분석 및 시민참여단 발전방향 등을 반영

- 미래비전은 도시 특성을 활용한 SWOT 분석과 시민참여단, 대구PLAN, 시민원탁회의,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 시정방향을 분석하여 향후 2030년의 대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설정함



- SWOT 분석 결과 지역의 강점은 광역교통의 요충지, 우수한 혁신자원 등이며, 약점은 산업구조조정 지연, 높은 중앙정부 의존 등이며, 기회는 광역경제권의 활성화 및 융복합 산업 활성화이며, 위협으로서는 도시권의 경쟁심화, 통합 신공항 지연 등으로 분석되었음
- 시민참여단에서는 「시민이 행복하고 일자리와 문화가 풍부한 열린도시」를 미래상으로 제시하였으며, 발전목표로서 지역별 특화유도, 문화관광산업 육성, 지역자원 중심의 부가가치 극대화 등을 제시하였음
- 대구PLAN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미래상의 달성을 위해 광역 중심성의 강화, 청년의 정주생활환경 조성, 미래 산업 선도도시의 조성을 제시하였음
- 시민원탁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골고루 함께 일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관광도시의 조성이었음
- 기정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은 영남권의 중추관리도시, 국제도시, 지식기반산업도시, 환경도시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시정방향은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경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천과제로서는 창조경제, 문화융성, 안전복지, 녹색환경, 소통협치를 제시하고 있음

❖ 발전목표는 미래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

- 2030년의 대구 미래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가 도시정책, 시민 참여단 및 원탁회의에서 제시한 정책 및 발전방향,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한 발전목표를 설정함
- 도시기본계획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임을 감안하여 발전목표는 각 부문별 계획의 비전 및 목표설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분야간 상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정함

❖ 추진전략은 각 부문별 계획의 실천전략과 연계

- 도시의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래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계획의 수립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함
- 각 부문별 계획의 상충 발생을 방지하고 파급효과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천전략 수립의 방향성을 설정함

다. 미래비전

❖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미래가 준비된 열린도시 대구

- 대구의 미래비전은 여건분석, 시민참여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민과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미래가 준비된 열린도시 대구」로 설정함
- 미래비전은 미래세대가 가장 살고 싶어 하고 미래사회 다양한 위기와 기회에 준비된 도시로 성장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음
 - 「시민과 함께」는 시민사회의 성숙과 시민참여 요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반영하여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조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
 - 「세계와 함께」는 국제도시로 성장을 위한 역량강화 및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
 - 「미래가 준비된」은 젊은 인구 유출 방지, 지역 정체성의 유지 및 발전, 미래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열린도시」는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미래의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본자세를 의미하며, 다양한 기회와 기술을 수용하여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자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



라. 미래비전 발전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 미래비전의 실현을 위한 발전목표와 추진전략은 열린도시의 구성요소인 열린공간, 열린사회, 열린기회의 개념을 적용하여 마련함
 - 열린공간 개념은 국제도시로 성장을 위해 광역권 도시와 유기적인 연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특화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주변 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설정함
 - 열린사회 개념은 사회의 복잡화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발전 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개방된 포용도시로 설정함
 - 열린기회 개념은 미래의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및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대처를 위해 도전과 창조로 만들어가는 미래형 산업도시로 설정함

1) 주변 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정주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여건변화에 적합한 풍부한 일자리를 확보함
-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풍부한 문화, 편의시설을 확보함

❖ 세계로 열린 영남권의 중추도시

- 통합 신공항을 활용하여 해외 도시의 연구 및 산업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시기반 정비를 통하여 국제도시를 조성함
- 광역권내 주변도시와 기능적 연계강화를 통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영남권의 관문도시로 육성함

❖ 지역별로 특화 발전하는 거점도시

- 지역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물, 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의 파급효과 극대화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산업도시를 조성함
- 각 지역별 활용가능 자산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발전방향 설정 및 추진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을 유도하는 거점도시로 육성함

2)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개방된 포용도시

- 국제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성이 존중되고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함
-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문화 자산 및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 문화도시로 육성함

❖ 자유롭고 열정이 넘치는 젊은도시

- 지역 간의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권별로 충분한 규모의 산업 용지를 계획하여 사람들이 모여드는 평등한 도시를 조성함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업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 인큐베이팅 기능 확대로 모두의 꿈을 키워주는 젊고 평등한 도시를 육성함
- 국제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성이 존중되고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함

❖ 정체성 있고 품격있는 문화도시

- 문화와 경제를 엮은 문화경제벨트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모이고 대화하고 미래를 꿈꾸는 활기찬 도시를 조성함
- 충분한 휴식공간 마련, 광역권 중심성 강화를 통하여 문화, 예술의 다양성과 정주생활 환경 마련으로 아름다운 문화도시 육성함
-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문화 자산 및 자연경관이 인공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 문화도시로 육성함

3) 도전과 창조로 만들어가는 미래형 산업도시

- 시민들이 도시공간관리에 적극참여하고 사회적 약자와 같이 살아가는 여건조성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함
-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민들간의 대화를 통해 실현성이 높아져 도전과 창조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체계의 구축을 추진함

❖ 모두가 도전하고 싶어 하는 기회도시

- 공동체 역량 및 커뮤니티 기능 강화로 시민이 도시발전에 주체가 되는 시민 참여 도시를 조성함
- 시민들이 모이고 대화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마련을 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생산되고 활력이 넘치는 기회도시로 육성함

❖ 미래사회를 선도할 스마트시티

- 미래사회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하는 창조도시로 조성함
- 지식기반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신산업과 기간산업이 융·복합하는 스마트시티로 육성함

2.2.3. 주요지표

가. 인구조표

-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조표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공급 등 각종 계획 수립 시 기준 지표가 되므로 지표설정 시 합리적인 관리정책이 요구됨
- 따라서, 금회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인구를 주민등록 인구자료와 통계청 추계인구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화된 인구조표를 도출함
 - 주민등록인구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인구를 집계하여 작성한 인구수로 외국에 유학이나 취업으로 출국한 인구를 포함(기준년도: 2015년)
 - 통계청 추계인구는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를 토대로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인구이동)을 감안하여 작성한 상주인구 개념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기준년도: 2015년)

1) 현황분석

가) 주민등록인구

-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전국 및 지역 단위의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을 기반으로 각 분야에 적시성 있는 자료제공이 가능함
- 지역단위의 세부적 특징(동 단위의 개발사업 유입, 전·출·입 등)을 반영 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맞춤형 정책 등의 수립이 용이함

❖ 총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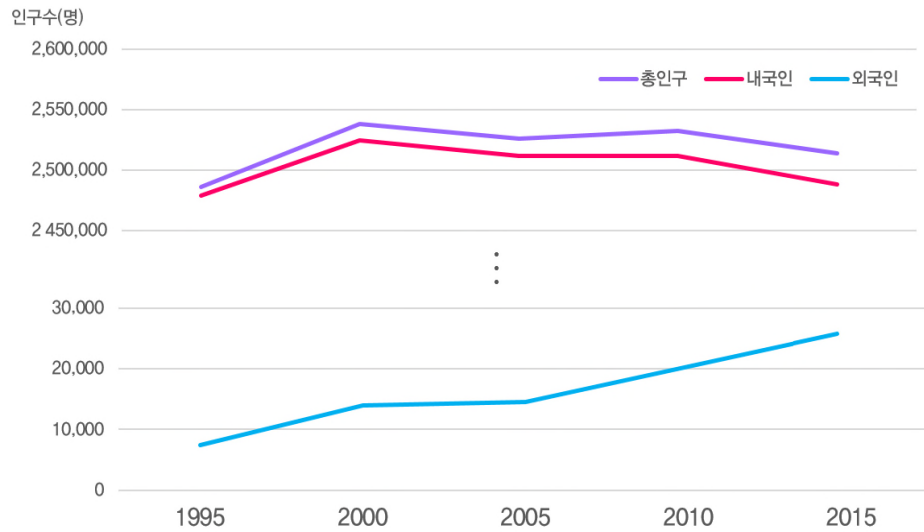
- 과거 20년간의 인구변화는 총인구가 0.06%, 내국인이(주민등록인구) 0.02% 정체현상을 보이는 반면, 외국인(체류 외국인)은 6.52%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내국인의 인구변화는 2000년 2,524천인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자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여자는 2010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외국인의 인구변화는 남자가 6.48%, 여자가 6.57%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2-6] 대구광역시 인구현황

(단위 : 인, %)

구 분	합 계 (총인구)	내 국 인			외 국 인		
		소 계	남 자	여 자	소 계	남 자	여 자
1995	2,485,977	2,478,589	1,246,728	1,231,861	7,388	4,281	3,107
2000	2,538,212	2,524,253	1,268,348	1,255,905	13,959	8,377	5,582
2005	2,525,836	2,511,306	1,259,092	1,252,214	14,530	8,974	5,556
2010	2,532,077	2,511,676	1,255,245	1,256,431	20,401	11,324	9,077
2015	2,513,970	2,487,829	1,237,291	1,250,538	26,141	15,041	11,100
증가율	0.06	0.02	-0.04	0.08	6.52	6.48	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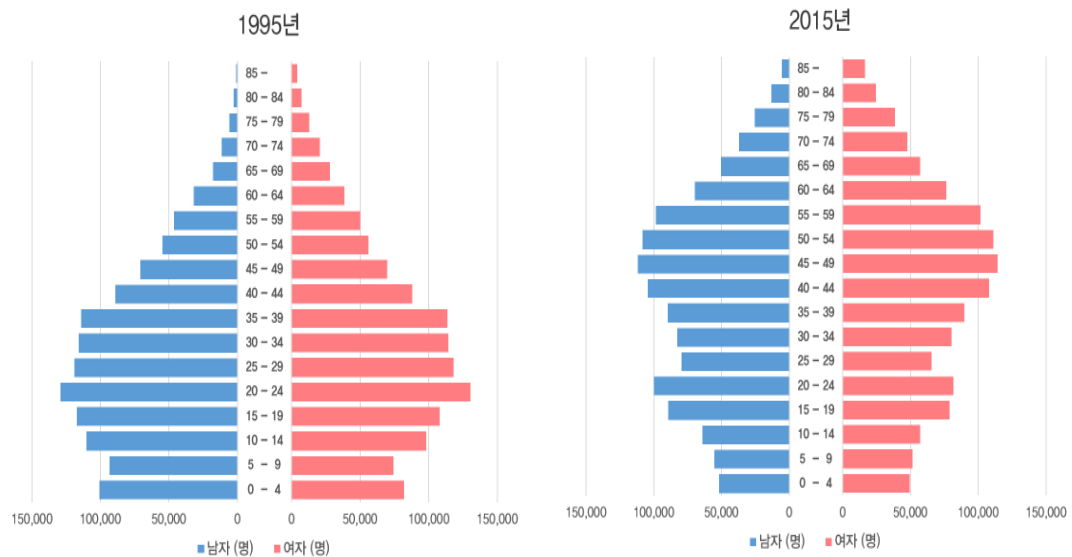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주민등록인구(내국인), 체류외국인 통계, 증가율은 등비급수 방식



[그림 2-2-1] 과거 20년간 대구광역시 인구 변동률

❖ 성별·연령별 인구

- 과거 20년간 성별인구 변화추세는 남자는 0.04%가 감소하여 2015년에는 20년 전인 1995년과 유사한 1,237천인이며, 여자는 0.08%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5년 감소한 사례가 있음
- 성별 인구구성비는 2005년 이전까지는 남자의 비율이 50% 이상이었으나, 2010년부터 여자비율이 50% 이상으로 변화되고 있음
- 과거 20년간 연령별 인구변화 추세는 14세 이하 인구가 2.73%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15세 이상 65세 미만은 0.14%, 65세 이상 인구는 5.2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2-2] 과거 20년간 성별연령별 인구 변동률

❖ 합계 출산율

- 과거 20년간 합계출산율은 1995년에 1.574인/가임여성1인에서 연평균 1.28% 감소하고 있으나, 2005년에 0.995인/가임여성1인으로 가장 낮았으나, 출산지원 정책의 적극 추진 등으로 2005년 이후 연평균 2.03%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2-7] 대구광역시 출산율 현황

(단위 : 인/가임여성1인, %)

구 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5	증가율
합계 출산율	1.574	1.368	0.995	1.005	1.131	1.072	1.029	1.109	1.216	-1.28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모의 연령별출산율, 증가율은 등비급수 방식

※ 합계 출산율 : 가임여성 1명당 전 생애 동안 출산아수, 모의 연령출산율 :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 당 출산아수

❖ 신생아 출생성비

- 과거 20년간 신생아 출생성비의 변화추세는 남자가 0.21% 감소하고 있으며, 여자는 0.23% 증가하고 있으며, 신생아의 출생성비는 남자가 51.7%임

[표 2-2-8] 대구광역시 신생아 출생성비

(단위 : %)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5	증가율
남 자	53.9	53.1	52.5	52.1	51.7	-0.21
여 자	46.1	46.9	47.5	47.9	48.3	0.23

자료 : 통계청, 시도/출산순위별 출생성비, 증가율은 등비급수 방식

❖ 사망률

- 사망률은 전 연령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감소세가 가장 높은 계급은 1~4세와, 5~9세로 감소율이 각각 5.0%, 5.5%임

[표 2-2-9] 대구광역시 연령별 사망률 현황

(단위 : 인/인구10만인, %)

구 분	2000	2005	2010	2015	증가율
평 균	0.03401	0.03063	0.0263	0.0237	-2.38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도 연령(5세)별 사망률, 증가율은 등비급수 방식

❖ 체류외국인

-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등록된 체류외국인은 과거 20년간 6.54%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현재 26,241인이 지역 내에 체류 중임
- 외국인의 성별 변화 추세는 남자는 6.48%의 증가추세를 보이며, 여자는 6.57%로 남자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출입 인구

- 과거 20년간 대구로 전입되는 인구는 0.98%, 전출되는 인구도 0.47%의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2010년 이후부터 전입되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과거 20년간 행정구역 내에서 인구이동은 3.21%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2-10] 전·출입 인구 현황

(단위 : 인, %)

구 분	행정구역 외			행정구역 내
	전 입(A)	전 출(B)	이 동(A-B)	
1995	112,235	115,514	-3,279	246,624
2010	96,168	108,008	-11,840	135,894
2015	92,239	105,179	-12,940	128,399
증가율	-0.98	-0.47	7.10	-3.21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 국내인구이동통계, 시군구별 이동자수, 증가율은 등비급수 방식

❖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인구

- 2015년 말 144개 단지, 103,790세대가 입주하였으며, 행정구역외지역에서의 전입율은 평균 3.0%로 조사됨
 -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따른 행정안전부 행정정보중계시스템을 활용
 - 조사기간은 2010~2015년

[표 2-2-11]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인구 현황

(단위 : 개소, 세대, %)

구 분		입주단지	입주세대(A)	행정구역 외	
				외부전입세대(B)	전입율(B/A)
합 계		144	103,790	3,139	3.0
주택사업		72	46,763	1,256	2.7
정비 사업	소 계	28	21,848	615	2.8
	재 개발	1	372	3	0.8
	재 건축	15	13,754	357	2.6
	주거환경	12	7,722	255	3.3
택지개발		33	26,663	560	2.1
산업단지		8	7,236	543	7.5
혁신도시		3	1,280	165	12.9

자료 : 개별사업 개발계획 내용, 행정자치부 연도별 전입·전출 자료

나) 통계청 인구(인구주택 총 조사)

- 인구 총 조사자료는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인구 총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방법을 병행하며, 5년 단위로 조사함
 - 전수조사 : 인구(내·외국인, 성, 연령, 세대 등), 가구(가구형태, 가구원수, 세대구성 등), 주택
 - 표본조사 : 혼인상태, 교육정도, 사회활동, 보육상태 등

❖ 통계청 총 조사인구 변화

- 과거 20년간의 인구변화는 총인구가 0.03%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내국인은 0.03% 감소 현상을 보이는 반면, 외국인은 10.29%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내국인의 인구변화는 2000년 2,480천인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자는 0.09%의 감소 추세인 반면 여자는 0.04%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외국인은 남자가 11.11%, 여자가 9.29%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2-12] 총 조사인구현황 (단위 : 인, %)

구 분	합 계	내 국 인			외 국 인		
		소 계	남 자	여 자	소 계	남 자	여 자
1995	2,453,552	2,449,420	1,233,712	1,215,708	4,132	2,103	2,029
2005	2,464,547	2,456,016	1,227,168	1,228,848	8,531	6,083	2,448
2015	2,466,052	2,436,770	1,211,219	1,225,551	29,282	17,292	11,990
증가율	0.03	-0.03	-0.09	0.04	10.29	11.11	9.29

자료 : 통계청, 인구 총 조사, 증가율은 등비급수 방식

❖ 주간인구 지수

-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인구 중 주간에 행정구역내에서 활동하는 주간인구지수는 2005년 96%에서 연평균 0.08%의 감소를 보여, 2015년 현재 95.2%로 나타남
 - 주간인구지수 = 주간인구/대구시 총인구
- 성별 주간인구지수는 2015년 현재 남자가 93.0%이고 여자는 97.3%이며, 증가율은 남자가 0.11%, 여자가 0.07%의 감소 추세를 보임

[표 2-2-13] 대구광역시 주간인구 지수 변화 (단위 : %)

구 분	2005			2010			2015			증가율		
	합 계	남 자	여 자	합 계	남 자	여 자	합 계	남 자	여 자	합 계	남 자	여 자
합 계	96.0	94.0	98.0	95.4	93.3	97.4	95.2	93.0	97.3	-0.08	-0.11	-0.07

자료 : 통계청, 총 조사인구, 통근·통학(20% 표본), 증가율은 등비급수 방식

❖ 통계청 장래 추계인구 설정 방법

- 통계청 장래추계 방법은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구동태(출생사망)와 국제인구이동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코호트 요인법(Cohort Components Method)으로 추계함
- 코호트(Cohort)요인법 : 특정 연도의 성 및 연령별 기준인구에 인구변동요인인 출생, 사망, 인구이동에 대한 장래변동을 추정하여 이를 조합하는 방법임
- 장래인구 추계는 일정한 가정(시나리오)을 전제로 작성되는 미래 전망치임

❖ 장래 추계인구와 현황인구 비교

-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구시의 장래 추계인구는 2030년에는 2,367천인, 2015년에는 2,469천인임
- 또한, 2015년 통계청 추계인구가 2,469천인인 반면, 대구시 현황인구가 2,514천인으로 45천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010년 이후 현황인구 변화 추세가 다양한 정책 추진 등으로 2,500천인에서 정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표 2-2-14] 통계청 추계인구와 현황인구 비교

(단위 : 인)

구 분		2010	2015	2020	2025	2030
통계청 추 계 인 구	합 계	2,479,781	2,468,755	2,446,239	2,408,834	2,366,938
	남 자	1,237,614	1,230,092	1,214,231	1,192,471	1,170,085
	여 자	1,242,167	1,238,663	1,232,008	1,216,363	1,196,853
현 황 인 구		2,532,077	2,513,970	-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2017),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

❖ 장래 추계인구 산정 활용지표 비교

- 통계청의 장래 추계인구 산정에 적용한 합계출산율은 2015~2030년까지 약 15년간 0.21%의 증가 추세인 반면, 주민등록통계는 1995~2015년까지 약 20년간의 합계출산율의 증가율은 1.28%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통계청 자료의 신뢰도가 낮음

[표 2-2-15] 합계출산율 비교

(단위 : 인/가임여성 1인, %)

구 분	1995	2010	2015	2020	2025	2030	증가율
통계청 추계인구	-	-	1.216	1.176	1.216	1.254	0.21
현 황 인 구	1.574	1.109	1.216	-	-	-	-1.2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증가율은 등비급수 방식

- 통계청의 장래 추계인구 산정에 적용된 사망률은 2015~2030년까지 약 15년간 증가율이 2.99%이나, 주민등록통계는 1995~2015년까지 약 20년간의 증가율이 0.88%임

[표 2-2-16] 사망률 비교

(단위 : 인/천인, %)

구 분	1995	2010	2015	2020	2025	2030	증가율
통계청 추계인구	-	-	5.40	6.30	7.40	8.40	2.99
현 황 인 구	4.44	4.84	5.29	-	-	-	0.88

자료 : 통계청 장래추계 인구, 시도/성 연령별 사망률, 증가율은 등비급수 방식

- 통계청의 장래 추계인구 산정에 적용된 순 이동은 2015~2030년까지 약 15년간 감소율이 3.12%이나, 주민등록 통계는 1995~2015년까지 약 20년간 유출인구가 7.10%로 증가 추세임

[표 2-2-17] 현황 대비 추계 순 이동률 비교

(단위 : %)

구 분	1995	2010	2015	2020	2025	2030	증가율
통계청 추계인구	-	-	-3.70	-3.20	-2.80	-2.30	-3.12
현 황 인 구	-1.33	-4.76	-5.24	-	-	-	7.10

자료 : 통계청 장래추계 인구, 시군구별 이동자수, 증가율은 등비급수 방식

❖ 통계청 추계인구 관련 검토의견

- 통계청의 장래 추계인구 산정에 활용된 지표를 현황인구를 기준으로 분석해 볼 때 불일치하는 등 신뢰성이 낮음
- 따라서, 출산친화정책 등 다양한 대구광역시 정책추진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여 통계청 인구추계 방식은 참고자료만 활용함

다) 상위계획 등 인구지표 검토

- 대구권 광역도시계획(2010년)에서 2020년 계획 인구는 2,600천인으로 계획하고 기존계획과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10%범위(260천인)내에서 조정을 허용함
- 2020년 대구 도시기본계획에서 2020년 계획인구는 2,750천인으로 계획하였으며, 2015년 현황인구가 2,514천인으로 2015년 계획인구 2,703천인의 92.05%에 달함

[표 2-2-18] 현황 대비 추계인구 비교

(단위 : 천인, %)

구 분	2005	2010	2015	2020	비 고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인구	2,555	2,575	2,590	2,600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인구	-	2,646	2,703	2,750	
현 황 인 구	2,526	2,532	2,514	-	

2) 인구추정의 기본방향 및 방법

가) 기본방향

❖ 대구광역시 정책목표실현을 위한 인구지표 설정

- 합계 출산율, 사망률, 순인구이동율 등의 지표는 출산장려정책, 인구 정착을 위한 생활환경 및 일자리 정책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지표임
- 인구지표 설정은 출산장려정책, 지역개발 정책 등 대구광역시 정책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설정함

❖ 자연적 증가인구는 출산율, 사망률, 신생아 성비 활용

- 자연증가인구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는 모의 연령별 출산율, 사망률, 신생아 성비를 활용함
- 기초자료는 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최근 20년간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출생, 사망(15년간) 등의 자료를 활용함

❖ 외부 유입인구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규정 적용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사회적 증가인구는 최근 5년간 준공된 사업지구 자료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침 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말 입주가 진행된 사업지구에 대해 외부 입주 비율을 분석하여 사업 유형별 외부 유입인구를 추정함

❖ 외부 유출인구는 인구이동 특성 반영

-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유입효과와 별도로 인구 유출현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인구 예측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의 변화 특성을 반영함

❖ 인구구조는 조성법의 자연증가 인구구조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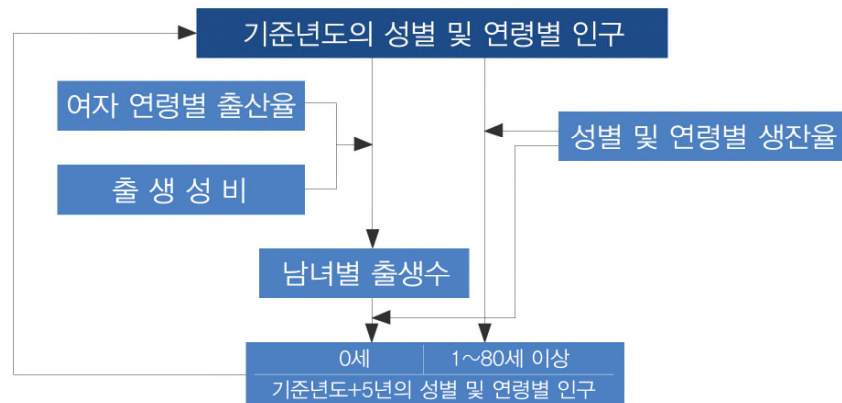
- 인구구조는 조성법을 통하여 산정된 연령별 성별 구조를 적용함(내국인, 외부유입인구, 외국인)

나) 인구추정 방법

- 인구에측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4-2-5에 따라 「모형에 의한 방법을 기본으로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합산하여 설정함
- 그 중 「모형에 의한 방법은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과 「추세 연장법」으로 2가지가 있음
-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은 출생율과 사망률에 따른 활용은 자연적 증가 인구와 개발 사업에 의한 사회적 증가분을 반영하여 인구를 예측함

❖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권장)

-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한 기준년도 인구에서 출생률, 사망률을 적용하여 인구를 예측함
- 출산율은 연령별 가임여성수와 출생인구의 성비를 반영하여 설정함
- 사망률은 각 연령별 사망률의 변화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함



❖ 추세 연장법

- 인구의 변화추세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등차급수, 등비급수, 지수함수, 최소자승법, 로지스틱 모형이 있음

[표 2-2-19] 추세연장법

구 분	산정식	비 고
등차급수	$P_n = P_0(1 + nr)$ $P_n = n\text{년 후의 추정인구}$ $P_0 = \text{현재의 인구}$ $n = \text{계획년간}$ $r = \text{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간의 예측에 적용 • 일정한 성장을 경험하는 지역
등비급수	$P_n = P_0(1 + r)^n$ $P_n = n\text{년 후의 추정인구}$ $P_0 = \text{현재의 인구}$ $n = \text{계획년간}$ $r = \text{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간의 예측에 적용 • 일정한 성장을 경험하는 지역
지수함수	$P_n = P_0 e^{rn} \quad r = \frac{1}{n} \ln\left(\frac{P_n}{P_0}\right)$ $P_n = n\text{년 후의 추정인구}$ $P_0 = \text{현재의 인구}$ $n = \text{계획년간}$ $r = \text{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성장지역의 단기적인 예측에 적합
최소자승법	$P = a + bx$ $a = \text{대입인구의 기준년도 인구계수}$ $b = \text{매년도 인구증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변화의 다른 설명변수들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예측모형으로 발전할 수 있음
로지스틱 모형	$P_t = (c + ab^t)^{-1}$ $\log(P_t^{-1} - c) = \log a + (\log b)t$ $\log a = \log(P_t^{-1} - c), \log b = \frac{\sum_t t \log(P_t^{-1} - c)}{\sum_t t^2}$ $c = \text{상한값}$ $a, b = \text{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규모가 성장의 상한에 수렴하는 모형으로 현실 설득력이 높아 대도시 인구예측에 널리 사용됨

❖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

- 사회적 증가는 인구이동(전출·입), 외국인 및 택지개발 등 개발 사업에 따른 유입인구에 따른 영향이 있음
- 인구이동(전출·입)은 행정구역 밖으로 이동되는 인구규모가 매년 1만인 내외인 점을 감안하여 인구예측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과거추세 연장방법을 활용하여 반영함
- 외국인은 출생·사망에 대한 자료 근거가 부족하여 과거추세 연장 방법(로지스틱)을 활용하여 반영함
- 개발 사업에 따른 유입 비율은 과거사례(개발사업 지구 내 외부유입인구비율)을 반영하여 실제로 유발 가능한 「가능유발인구」를 설정함
- 개발 사업에 따른 유입인구는 개발계획이 기 확정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및 주택사업 등의 미 입주 지구와 계획수립중인 사업을 반영함

3) 인구추정

- 생산모형에 의한 조성법, 추세 연장법,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을 활용하여 추정함

가) 생산모형에 의한 조성법

- 생산모형에 의한 조성법에 적용되는 출산율, 사망률, 성비는 과거 20년 간(사망률은 15년) 주민등록인구자료를 활용하여 각각의 장래지표를 산정함

❖ 출산율(모의연령별 출산율, 성비)

- 출산율은 <표 2-2-7~8>의 자료를 활용하여 미래예측의 오차발생이 적은 로지스틱 모형(표 2-2-19)을 적용하여 장래지표를 설정함
- 로지스틱 모형은 인간(생물)의 증식과정이나 경제의 발전과정을 근사적으로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현실적인 추세 감안에 유리함
- <표 2-2-15>에서 도출된 장래 모의연령별 출산율 이용한 2030년까지 출생자는 215천인으로 추정됨

[표 2-2-20] 장래 자연증가 인구

(단위 : 인)

구 분	2015~2020			2020~2025			2025~2030		
	합 계	남	여	합 계	남	여	합 계	남	여
출 생	77,825	39,845	37,980	62,695	31,740	30,955	74,635	37,355	37,280

❖ 사망률

- <표 2-2-9>의 자료를 활용하여 오차가 발생되지 않는 등비급수(표2-2-19)를 활용하여 장래지표를 설정함
- 등차, 등비, 지수, 최소자승, 로지스틱 공식을 이용하여 검토하였으나, 등비 모형을 제외한 다른 모형은 Error(-값, 계산오류, 예측 값 과다)로 사용이 불가

[표 2-2-21] 장래 사망 인구

(단위 : 인)

구 분	2020			2025			2030		
	합 계	남	여	합 계	남	여	합 계	남	여
사 망	16,667	7,233	9,434	26,681	10,974	15,707	47,046	19,478	27,568

❖ 출생·사망인구 추정

- 2015년 주민등록인구 2,487,829인을 기준으로 <표 2-2-20 ~ 21>에서 도출된 장래지표 적용함
- 출생 및 사망에 의한 내국인의 자연증가 인구는 2015년 2,487천인에서 2030년 2,612천인으로 증가함
- 2030년까지의 순 증분은 출생이 215천인, 사망이 90천인으로 125천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2-2-22] 출생·사망에 따른 자연증가인구 추정 결과

(단위 : 인)

구 분		2015	1단계(A) (2016~2020)	2단계(B) (2021~2025)	3단계(C) (2026~2030)	비 고 (A+B+C)
자연 증가 인구	합계	2,487,829	2,548,987	2,585,001	2,612,590	
	남자	1,237,291	1,269,903	1,290,669	1,308,546	
	여자	1,250,538	1,279,084	1,294,332	1,304,044	
순 증 분	소계	계	61,158	36,014	27,589	124,761
		남자	32,612	20,766	17,877	71,255
		여자	28,546	15,248	9,712	53,506
	출생	계	77,825	62,695	74,635	215,155
		남자	39,845	31,740	37,355	108,940
		여자	37,980	30,955	37,280	106,215
	사망	계	16,667	26,681	47,046	90,394
		남자	7,233	10,974	19,478	37,685
		여자	9,434	15,707	27,568	52,709

자료 : 2015년 인구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외국인 제외)

- 2030년의 자연증가 인구 2,612천인 중 14세 이하 인구 215천인, 15~64세 인구 1,602천인, 65세 이상 인구는 795천인으로 추정됨

나) 추세연장법

- 추세 연장법<표 2-2-19>은 등차급수, 등비급수, 지수함수, 최소자승법, 로지스틱 모형이 있음
- 인구예측모형별 추계인구 중 등비급수방식이 2,562천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수방식이 2,526천인으로 가장 낮게 예측됨
- 5개의 인구예측 모형의 2030년 추계인구 평균은 2,541천인으로 기준년도의 2,514천인과 대비할 경우 정체인상이 보일 것으로 예측됨

[표 2-2-23] 추세연장법에 의한 계획인구 추정 결과

(단위 : 인)

구 분	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평 균	2,513,970	2,526,164	2,533,122	2,540,889
등차급수		2,520,968	2,527,967	2,534,965
등비급수		2,525,997	2,541,634	2,562,222
지수함수		2,518,470	2,522,548	2,526,260
최소자승법		2,532,183	2,536,189	2,540,195
로지스틱 모형		2,533,202	2,537,270	2,540,801

자료 : 2015년 인구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및 체류외국인을 합한 수입

다)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

- 사회적 증가는 전·출입에 따른 인구이동, 체류외국인 변화, 개발 사업에 따른 유입인구를 반영함

❖ 인구이동(순 이동)

- <표 2-2-10>는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를 기준으로 하는 시도 간 인구이동(전입, 전출)자료로서 장래지표는 현실적인 추세를 감안하는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함
- 순이동인구의 반영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반영하여 인구예측의 정확성 향상을 도모함
- 장래 전입·전출 비율을 활용한 시도 간 인구이동(순 이동)은 2020년 19천인, 2025년 20천인, 2030년 17천인으로 추정됨

[표 2-2-24] 장래 순 이동인구 추정

(단위 : 인)

구 분	2020			2025			2030		
	합 계	남	여	합 계	남	여	합 계	남	여
순 이동(B-A)	19,644	8,187	11,457	20,207	8,065	12,142	17,659	7,022	10,637
전입 인구(A)	80,899	45,356	35,543	70,893	41,299	29,594	61,623	36,268	25,355
전출 인구(B)	100,543	53,543	47,000	91,100	49,364	41,736	79,282	43,290	35,992

❖ 체류외국인

- 체류외국인은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 사용이 불가하여 <표 2-2-12>의 인구변화 추세를 로지스틱 모형에 적용하여 목표연도별 외국인 인구를 추정함

[표 2-2-25] 외국인 인구 추정

(단위 : 인)

구 분	2015	2020	2025	2030
외국인	26,141	30,066	34,287	37,972

자료 : 2015년 외국인 인구는 통계청 체류외국인통계

❖ 개발사업 유입인구

- <표 2-2-11>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인구 현황을 감안하여 개발사업 등에 따른 외부 유입인구는 123천인으로 산정함
- 사업별 외부유입률은 사업승인을 득한 지구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구분하여 적용함
 - 정비사업·주택사업 : 5.5%, 택지개발 : 8.5%
 - 복합개발·도시개발 : 주거 20.0%, 상업 등 30.0%

[표 2-2-26]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인구 추정

(단위 : 인, %)

구 분		계 획 인 구	유 입 인 구	유입률	1단계 (16~20)	2단계 (21~25)	3단계 (26~30)
합 계		723,429	123,200	-	14,400	41,600	67,200
사 업 승 인	소 계	497,160	88,285	-	12,968	38,490	36,827
	복합개발	176,360	49,917	20~30	3,508	37,285	9,124
	택지개발	68,971	5,863	8.5	1,785	878	3,200
	도시개발	71,682	22,596	20~30	-	327	22,269
	정비사업	152,147	8,370	5.5	6,136	-	2,234
	주택사업	28,000	1,539	5.5	1,539	-	-
추진 사업	소 계	212,899	32,738	-	799	2,116	29,823
	대구공항	144,441	19,762	5~20.0	-	1,100	18,662
	친환경산업단지	9,827	811	5.0	-	-	811
	문화 스포츠 메카	28,200	2,327	5.0	681	146	1,500
	그린에너지 육성단지	3,883	320	5.0	-	20	300
	지역 현안사업	26,548	9,518	20~30	118	850	8,550
민간제안사업		13,370	2,177	16.3	633	994	550

자료 : 계획인구는 해당 사업별 사업 및 개발계획 내용

❖ 사회적 증가인구

- 목표연도인 2030년에 사회적 증가인구는 143천인으로 예측되며, 시도 간 인구이동으로 18천인이 유출되고, 외국인인 38천인,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인구가 123천인으로 예측됨

[표 2-2-27]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

(단위 : 인)

구 분	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비 고
합 계	26,141	24,822	70,080	143,513	
인구이동(순 이동)	-	-19,644	-20,207	-17,659	
외국인	26,141	30,066	34,287	37,972	
개발사업	-	14,400	56,000	123,200	

자료 : 2015년 외국인 인구는 통계청 체류외국인 현황

4) 인구지표 설정

❖ 목표인구

- 인구변화 특성이 시계열적인 연속성이 낮으므로 추세연장법은 미래예측에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목표인구 설정은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으로 산출된 자연적 증가인구와 「사회적 증가분에 따른 추정방법」으로 산출된 사회적 증가를 합산하여 설정함
- 조성법에 의해 예측된 인구에 대해 미래여건변화에 대응을 감안하여 목표연도 인구는 2,750천인으로 설정함

[표 2-2-28] 목표인구

(단위 : 인)

구 분	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비 고
적 용	2,513,970	2,571,000	2,651,000	2,750,000	※추정값의 95%
추정값	합 계	2,513,970	2,573,809	2,655,081	2,756,103
	자연증가	2,487,829	2,548,987	2,655,081	2,612,590
	사회적증가	26,141	24,822	70,080	143,513

자료 : 2015년 자연증가는 주민등록인구, 사회적 증가는 체류외국인 현황

❖ 단계별 인구

- 단계별 인구지표는 1단계인 2020년에 2,571천인, 2단계인 2025년에 2,651천인, 3단계인 2030년에 2,750천인으로 설정함
- 자연증가인구는 출산 친화 정책 등의 추진으로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사망은 고령인구로 인해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사회증가인구는 청년 친화 정책 등의 추진으로 유출인구는 감소하고, 개방된 포용도시 조성 등으로 외국인 및 외부 인구가 완만하게 유입될 것으로 예측됨

[표 2-2-29] 단계별 목표인구 적용

(단위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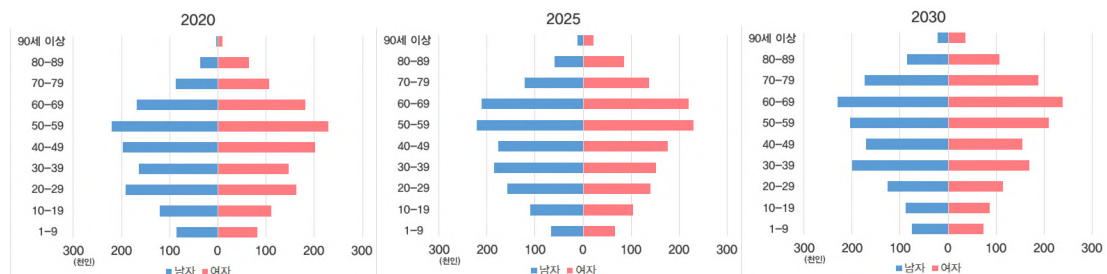
구 분			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합 계			2,513,970	2,571,000	2,651,000	2,750,000
자연 증가	소 계		2,487,829	2,546,600	2,581,400	2,607,600
	순 증분	출생		74,771	60,500	70,700
		사망		16,000	25,700	44,500
사회 증가	소 계		26,141	24,400	69,600	142,400
	인구이동			-18,900	-19,500	-16,700
	외국인		26,141	28,900	33,100	35,900
	개발사업			14,400	56,000	123,200

자료 : 2015년 자연증가는 주민등록인구, 사회적 증가는 체류외국인 현황

❖ 인구구조

- 인구구조는 <표 2-2-29>에서 도출된 자연증가 인구구조를 사회적 증가인구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설정함
- 14세 이하 인구는 2015년 399천인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217천인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308천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841천인으로 예측됨
- 남녀 성비는 2030년에 평균 50 : 50으로 균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단위 : 천인)



[그림 2-2-3]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 주간인구

- <표 2-2-13>에 따른 연령별 주간인구 지수는 0.08%의 감소 추세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산업 등 부문별 계획 실천전략 추진을 감안하여 0.02%의 증가 추세를 적용함
- 목표연도 2030년의 상주인구 275만인중 주간인구지수를 95.42%로 설정하여 주간활동 인구는 262만인으로 설정함

5) 인구지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 출산장려 정책을 통한 인구증가 유도

- 2005년에 합계출산율이 0.995까지 낮아 졌으나, 2007년 출산 축하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증가추세로 변화되었음
- 대구의 출산지원 정책은 2007년부터 시행하는 출산축하금 지원정책, 다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2010년), 둘째아이 지원을 위한 쉼터 출산(2011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극복을 위해 적정 출산율의 유지가 필요하므로 출산장려 정책(일과 여가의 조화, 근로자의 모·부성권의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출 억제

-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은 2000년 이전까지 전·출입 인구가 비슷하였으나, 2005년 이후 부터는 전입인구가 급격히 감소함
- 따라서, 지역의 적정 인구규모의 유지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유출 방지, 고용기회의 형평성이 강화될 수 있는 정책과 환경 등을 조성함

[표 2-2-30] 연도별 전출·입 인구 현황

(단위 : 인)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5
전 입	112,235	110,137	102,893	96,168	92,239
전 출	115,514	113,489	127,843	108,008	105,179
이동인구	-3,279	-3,352	-24,950	-11,840	-12,940

자료 : 통계청

❖ 외부인구 유입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

- 주민등록인구 검토결과 개발사업의 추진은 외부인구 유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지역경제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함

나. 가구지표

1) 현황

❖ 주민등록 세대수

- 전국의 주민등록 세대수는 과거 20년간 연평균 2% 증가하였으나, 대구시는 1995년 751천 세대에서 2015년 982천 세대로 연평균 1.35%로 증가하고 있음

[표 2-2-31] 주민등록 세대수 현황

(단위 : 세대, %)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5	증가율
전 국	14,152,894	15,765,275	17,857,511	19,865,179	21,011,152	2.00
대구시	751,475	805,779	865,766	934,598	982,360	1.35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 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 세대수

❖ 가구당 인구수

- 1인가구는 1995년 82,766호에서 2015년 239,517호로 연평균 5.46%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총인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3년 3.34%에서 2015년에 9.63%로 연평균 5.44%증가하고 있음
- 총가구에서 1인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는 1995년 668,709호에서 2015년 742,843호로 연평균 0.53%증가하고 있음

[표 2-2-32] 가구당 인구수 현황

(단위 : 인, 호, 인/호, %)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5	증가율
총인구①		2,478,589	2,524,253	2,511,306	2,511,676	2,487,829	0.02
총가구②		751,475	805,779	865,766	934,598	982,360	1.35
1인 가구	가구수③	82,766	107,913	148,331	192,472	239,517	5.46
	비율 (③/①)	3.34	4.28	5.91	7.66	9.63	5.44
일반 가구	가구수 (②-③)	668,709	697,866	717,435	742,126	742,843	0.53
	인구수 (①-③)	2,395,823	2,416,340	2,362,975	2,319,204	2,248,312	
	가구당 인구수	3.58	3.46	3.29	3.13	3.03	-0.84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 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 세대수/ 총 조사가구, 1인가구(10%표본)
행정구역/세대구성, 가구주의 연령별 인구

❖ 1인가구 현황

- 대구시 1인가구는 2000년 107,913호에서 2015년 239,517호로 연평균 5.46%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남자1인가구의 증가율이 6.41%로 높음
- 1인가구는 북구, 달서구, 달성군과 같이 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의 증가율이 높음

[표 2-2-33] 1인가구 현황

(단위 : 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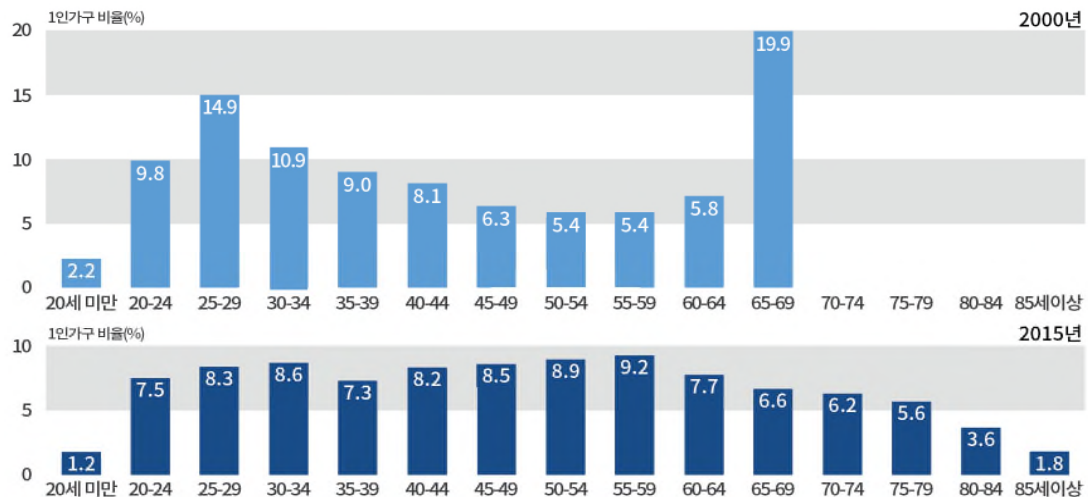
구 분	2000			2015			증가율		
	합 계	남자	여자	합 계	남자	여자	합 계	남자	여자
대구시	107,913	44,200	63,713	239,517	112,180	127,337	5.46	6.41	4.72
중 구	6,571	2,412	4,159	12,086	5,406	6,680	3.02	5.53	3.21
동 구	15,483	6,329	9,154	33,436	15,255	18,181	4.88	6.04	4.68
서 구	15,176	6,861	8,315	23,450	11,192	12,258	2.66	3.32	2.62
남 구	11,960	4,067	7,893	25,525	11,094	14,431	4.56	6.92	4.1
북 구	14,407	6,436	7,971	43,864	22,402	21,462	6.65	8.67	6.83
수성구	18,220	6,369	11,851	33,098	13,479	19,619	5.47	5.12	3.42
달서구	20,677	9,631	11,046	53,796	25,901	27,895	7.98	6.82	6.37
달성군	5,419	2,095	3,324	14,262	7,451	6,811	6.88	8.83	4.9

자료 : 총 조사가구, 1인가구(10%표본) 행정구역/세대구성, 가구주의 연령별 인구

※1인가구 조사는 2000년부터 시행

❖ 1인가구 연령별 변화 추이

- 각 연령별 1인가구의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연령은 2000년에는 25~34세, 65~69세로 조사되었으나, 2015년에는 10%를 초과하는 연령이 없는 반면 40세 이상의 계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2) 기본방향 설정

❖ 가구 특성에 대한 분석·검토를 통한 가구규모 설정

- 가구당 인구수는 주택 및 생활편의시설 계획 수립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가구특성에 대한 분석·검토를 통하여 가구규모를 설정함
- 가구규모는 1인가구와 일반가구의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각 부문별 계획수립 시 지표로 활용함

3) 가구지표 설정

- <표 2-2-32>에 따른 과거 20년간 총인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 추세인 5.44%를 적용하여 2030년에는 9.71%로 설정하여 목표연도에 1인가구는 266,925호로 설정함
- 일반가구원 수는 2030년 목표인구 2,750,000인 중에서 1인가구를 제외한 2,483,075인으로 설정함
- 일반가구의 가구 당 인구는 <표 2-2-32>의 일반가구 가구당 인구수 변화 추세인 -0.84%를 적용하여 3.02인/호로 설정하고, 가구수는 일반가구 인구 2,483,075인에 일반가구 당 인구를 적용하여 821,443호로 설정함
- 1인가구(266,925호)와 일반가구(821,443호)를 포함한 가구수는 1,088,368호에, 목표인구 2,750,000인을 적용한 평균 가구 당 인구는 2.5인/호로 분석됨

[표 2-2-34] 목표연도 가구규모 설정 (단위 : 인, 인/호, 호)

구 분			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인 구	합 계(A)		2,513,970	2,571,000	2,651,000	2,750,000
	1인 가구	비 율	9.53	9.65	9.68	9.71
		가구수(B)	239,517	248,198	256,617	266,925
	일반가구원 수C=(A-B)		2,274,453	2,322,802	2,394,383	2,483,075
일반가구 당 인구(D)			3.03	3.03	3.02	3.02
가 구	합 계(Z)		982,360	1,015,975	1,048,387	1,088,368
	1인가구(B)		239,517	248,198	256,617	266,925
	일반가구(C/D)		742,843	767,777	791,770	821,443
평균 가구 당 인구(A/Z)			2.6	2.5	2.5	2.5

다. 경제지표

- 지역 총생산액은 연평균 3.31%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규모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평균 6.0%로 설정하여 2030년에 120조원으로 계획함
- 취업률은 연평균 0.1%의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성장을 감안하여 연평균 1.0%로 설정하여 2030년에 97.86%로 계획함
- 취업인구의 산업별 배분은 1차산업과 2차산업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산업 구조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차산업은 2%, 2차산업은 20%로 상향하여 계획함
- 통계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예측하기 위해 고용율을 도입하고, 지표는 연평균 1.2%의 성장추세를 적용하여 78.0%로 계획함
 - 취업률은 조사대상주간에 1시간 이상 일한 자의 비율이며, 고용율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임
 - 여성고용률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0.4%의 증가추세를 적용하여 52.2%로 계획함
 - 청년고용률은 지역 유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와 정주생활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여 연평균 2.2%의 성장추세를 적용하여 54%로 계획함

[표 2-2-35]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15	1단계 (2016~2020)	2단계 (2021~2025)	3단계 (2026~2030)	비 고
지역총생산액	조원	48.9	65.4	87.5	120.0	
지역 점유율	%	3.12	3.39	3.68	4.00	
경제활동참여율	%	61.6	62.2	63.0	63.9	
경제활동인구	천인	1,291	1,427	1,520	1,619	
취 업 률	%	96.51	96.94	97.40	97.86	
취업인구	천인	1,234	1,383	1,480	1,584	
1 차	천인 (%)	21 (1.7)	25 (1.8)	28 (1.9)	32 (2.0)	
2 차	천인 (%)	235 (19.0)	267 (19.3)	290 (19.6)	317 (20.0)	
3 차	천인 (%)	978 (79.3)	1,091 (78.9)	1,162 (78.5)	1,235 (78.0)	
고용률	%	65.4	69.4	73.5	78.0	
여성고용률	%	49.2	50.0	51.0	52.2	
청년(15~29세)고용률	%	39.3	44.0	49.0	54.0	

지역총생산액	취업률	여성고용률	청년고용률
120조원	97.86%	52.2%	54%

라. 환경지표









- 부문별 계획에서 설정한 지표 참조

1) 복지환경

- 의사1인당 서비스 인구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3.19%의 감소 추세를 적용하여 2030년에 200인으로 설정함
-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노인 건강 돌봄 서비스의 확대 등을 추진하여 65세이상 노인 건강수명을 76.1세에서 2030년에 95세까지로 상향하여 설정함
- 공공복지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율을 6%에서 2030년까지 14.2%로 상향하여 설정함
-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됨으로 인해 육아 문제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3%에서 15%로 상향하여 설정함

[표 2-2-36] 복지환경지표

구 분			단 위	2015	1단계 (2016~ 2020)	2단계 (2021~ 2025)	3단계 (2026~ 2030)	비 고
의 료	병상당 인구수		인/병상	71	56	45	36	
	의사당 인구수		인/인	323	270	230	200	
	보건소 의사당 인구수		인/인	73,940	71,500	69,000	67,000	
복 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77.8	80.0	85.0	90.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4.6	3.5	2.5	1.7	
	65세이상 노인건강수명		세	76.1	82.0	88.0	9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4.6	3.5	2.4	1.3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	6.0	8.7	11.5	14.2	
	행복나눔의 집		개소/호수	1/8	3/30	4/45	5/60	
	평생학습참여율		%	32.2	40.0	50.0	60.0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마을수	19	80	100	139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	3.0	7.0	11.0	15.0	
교 육	학급당 학생수	초	인/학급	22.3	22.0	21.5	21.1	
		중		28.6	26.0	24.0	23.3	
		고		31.1	27.0	23.5	20.4	
	교사당 학생수	초	인/인	14.6	14.6	14.6	14.6	
		중		14.5	14.0	13.5	13.0	
		고		13.7	13.5	13.3	13.1	
	도서관	1인당 연면적	㎡/인	0.03	0.05	0.06	0.08	
		1인당 도서 수	권/인	1.47	2.04	2.84	3.94	

병상당 인구수	의사당 인구수	장애인편의시설설치비율	65세이상 노인건강 수명
 36인/인	 200인/인	 90.0%	 95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도서관 1인당 연면적	1인당 도서관
 1.3%	 15%	 0.08%	 3.94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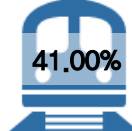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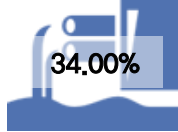



2) 생활환경

- 주택보급률은 현재 103.9%이나 이사 수요 및 멸실주택의 신축 등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에는 106%로 설정함
-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 수요에 적극 대처를 위해 최저주거수준미달가구 4.6%에서 1.3%로 설정함
-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률을 3.7%에서 15.9%으로 상향하여 설정함

[표 2-2-37] 생활환경지표

구 분		단 위	2015	1단계 (2016~ 2020)	2단계 (2021~ 2025)	3단계 (2026~ 2030)	비 고
주 거	주 택 보 급 률	%	103.90	104.60	105.30	106.00	
	최저주거수준미달가구	%	4.60	3.00	2.00	1.30	
교 통	대 중 교 통 분 담 률	%	35.00	37.00	39.00	41.00	
	자전거수단분담률	%	5.0	7.0	8.5	10.0	
	자전거 보유율	%	50.0	55.0	57.0	60.0	
	자전거 보관시설	천대	40.0	45.0	47.0	50.0	
상수도	보 급 률	%	99.93	100.00	100.00	100.00	
	유 수 율	%	91.20	92.00	93.00	94.00	
	평균급수량	l/인일	338	314	291	271	
하수도	보 급 률	%	98.29	100.00	100.00	100.00	
	오수전환율	%	90.00	90.00	90.00	90.00	
	재 이 용 률	%	30.11	32.00	33.00	34.00	
폐기물	1인1 배출량	kg/인일	1.18	1.18	1.17	1.16	

구 분		단 위	2015	1단계 (2016~ 2020)	2단계 (2021~ 2025)	3단계 (2026~ 2030)	비 고
에너지	전력자립률	%	18.84	23.00	28.00	34.00	
	재생에너지이용률	%	3.70	10.00	12.80	15.90	
수 질 (BOD)	낙 동 강	mg/ ℓ	2.60	1.90	1.80	1.70	
	금 호 강	mg/ ℓ	4.30	2.80	2.70	2.60	
대기질	미 세 먼 지	μg/ m³	46	45	44	43	



주택보급율	대중교통 분담율	자전거 수단 분담율	상수도 유수율
 106.00%	 41.00%	 10.0%	 94.00%
하수 재이용율	폐기물 1인1일 배출량	전력 자립률	재생에너지 이용률
 34.00%	 1.16kg/인 일	 34.00%	 15.90%

3) 여가환경

-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은 10.0㎡에서 12.5㎡를 목표로 설정함
- 시가지내 녹지공간의 확충을 위해 녹피율은 62.3%에서 65.0%로 상향하여 목표로 설정함

[표 2-2-38] 여가환경지표

구 분		단 위	2015	1단계 (2016~ 2020)	2단계 (2021~ 2025)	3단계 (2026~ 2030)	비 고
도시 공원	개 소	개소	796	870	1,187	1,187	
	공 원 면 적	km²	24.8	27.0	30.0	34.4	
	1인당 공원면적	㎡/인	10.0	10.5	11.5	12.5	
녹 피 율		%	62.3	63.0	64.0	65.0	

1인당 공원면적	녹 피 율
 12.5㎡	 65.0%

2.3 공간구조 및 생활권

2.3.1. 공간구조 구상

가. 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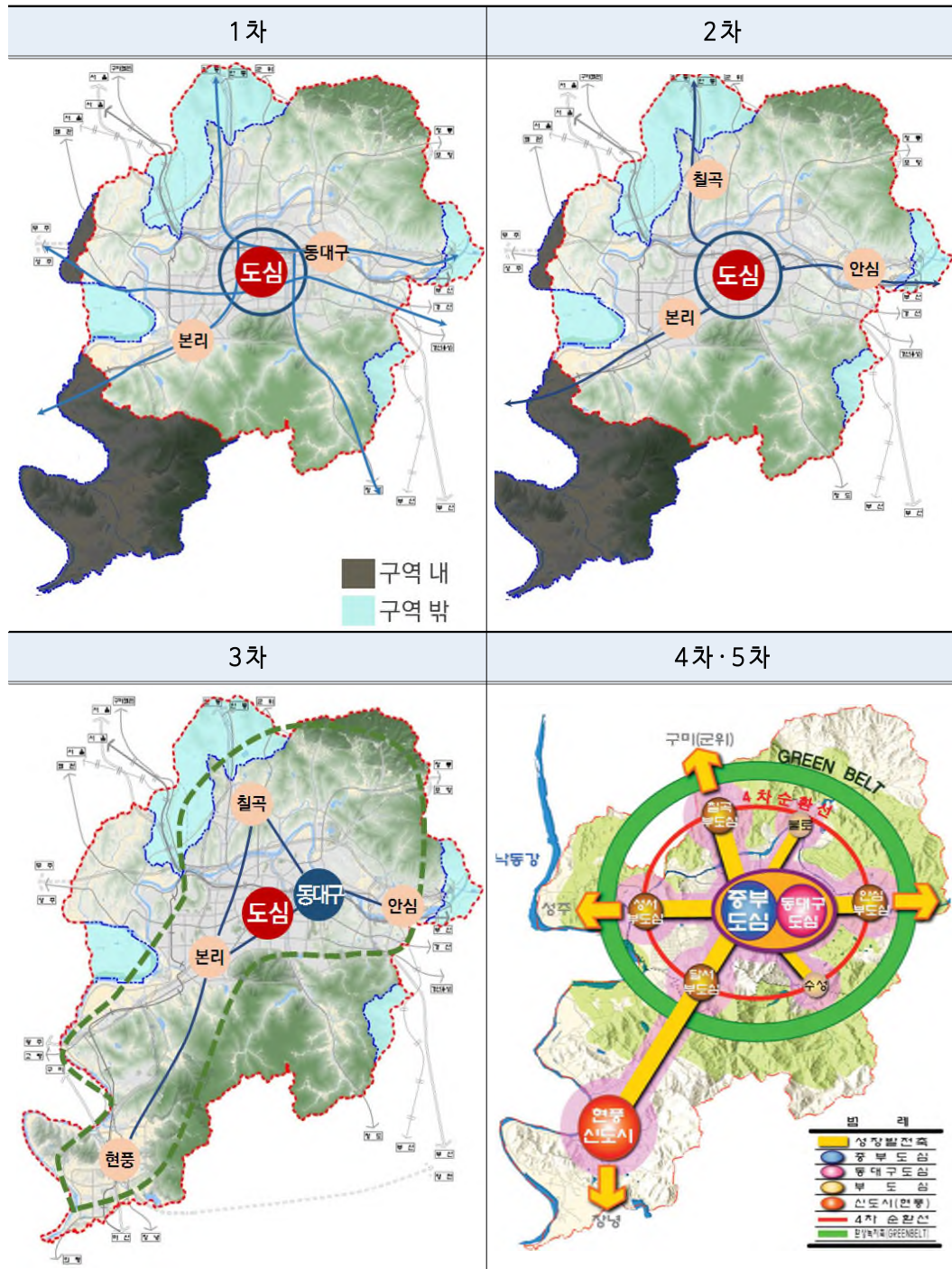
1) 도시 공간구조체계 변화 추이

❖ 발전축 및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공간구조 형성

- 대구 도시기본계획은 1984년 최초 수립 이후 그동안 총 4차례 정비하였으며, 도심 위치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부도심의 위치와 개소는 조정되었음
- 도심은 최초 도시기본계획 수립부터 1차순환선 내부지역인 중부를 도심으로 설정함
 - 1997년 3차 변경 시에 동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을 반영하여 동대구를 신도심으로 설정
- 부도심은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하여 설정함
 - 1차(1984년)에서는 동·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개의 부도심(본리·동대구)로 설정함
 - 2차(1992년) 변경에서 광역화 추세를 반영하여 3개의 부도심(칠곡, 본리, 안심)으로 설정함
 - 3차(1997년) 변경에서 현풍지역의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부도심 1개소(현풍)를 추가함
 - 4차(2007년) 변경에서 현풍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도시로 기능을 조정하고, 서부지역의 발전 축을 위하여 부도심(성서)를 추가함

[표 2-3-1] 도시공간구조 구상 변화

구 분		1 차	2 차	3 차	4 · 5 차
계획수립		1984년	1992년	1997년	2007년/2010년
년 도	기 준	1980년	1988년	1994년	2000년/2007년
	목 표	2001년	2001년	2016년	2020년
인 구	계 획	315만인	315만인	320만인	275만인
	현 황	183만인	231만인	247만인	254만인
중심지	도 심	1(중부)	1(중부)	2(중부, 동대구)	2(중부, 동대구)
	부도심	2(본리, 동대구)	3(칠곡, 본리, 안심)	4(칠곡, 달서, 안심, 현풍)	4(칠곡, 달서, 안심, 성서)
신 도시		-	-	-	1(현풍)



[그림 2-3-1] 대구 도시공간구조 변천도



2) 공간구조 현황

❖ 기정 계획의 중심지 체계

- 기정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는 2개의 도심(중부, 동대구)과 4개의 부도심(칠곡, 안심, 달서, 성서), 1개의 신도시(현풍)로 구성되어 있음

❖ 도심

- 도시의 태생기에 관청이 입지하여 중추 행정기능과 판매기능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지역으로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재생사업 추진 중임
- 동대구 도심은 광역교통의 중심지 기능과 동대구로를 중심으로 금융 및 업무기능들이 집적되고 있는 지역으로 역세권 개발 및 재정비 촉진지구 등 도심기능 강화사업 추진 중임

❖ 부도심 및 신도시

- 부도심은 각 방향별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동측은 안심부도심을 반야월 시장에 위치, 서측은 성서택지 중심으로 결정되어 있음
- 남측은 달서부도심으로 본리동 일원의 대규모 주거지를 중심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북측은 칠곡부도심으로 칠곡택지를 중심으로 결정되어 있음
- 신도시는 달성군 현풍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테크노 파크와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결정되어 있음

[표 2-3-2] 2020 대구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 체계

구 분		특 징	중심기능	공간구조구상도
도심	중부(CB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중심의 자연 발생형 시가지 • 근대문화유산 및 문화공간이 입지 • 1차순환선 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중추관리, 업무, 전문상업, 정보통신, 문화 중심 	
	동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구획정리사업 • 역세권 및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중추관리, 국제 업무 • 광역고속교통 중심 	
부도심	칠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 상업·업무, 주거중심 	
	안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발생 시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 주거, 레포츠·휴양 중심 	
	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구획정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생산, 유통, 주거중심 	
	성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주거, 교육기능 	
신도시	현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크노폴리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 생산, 레포츠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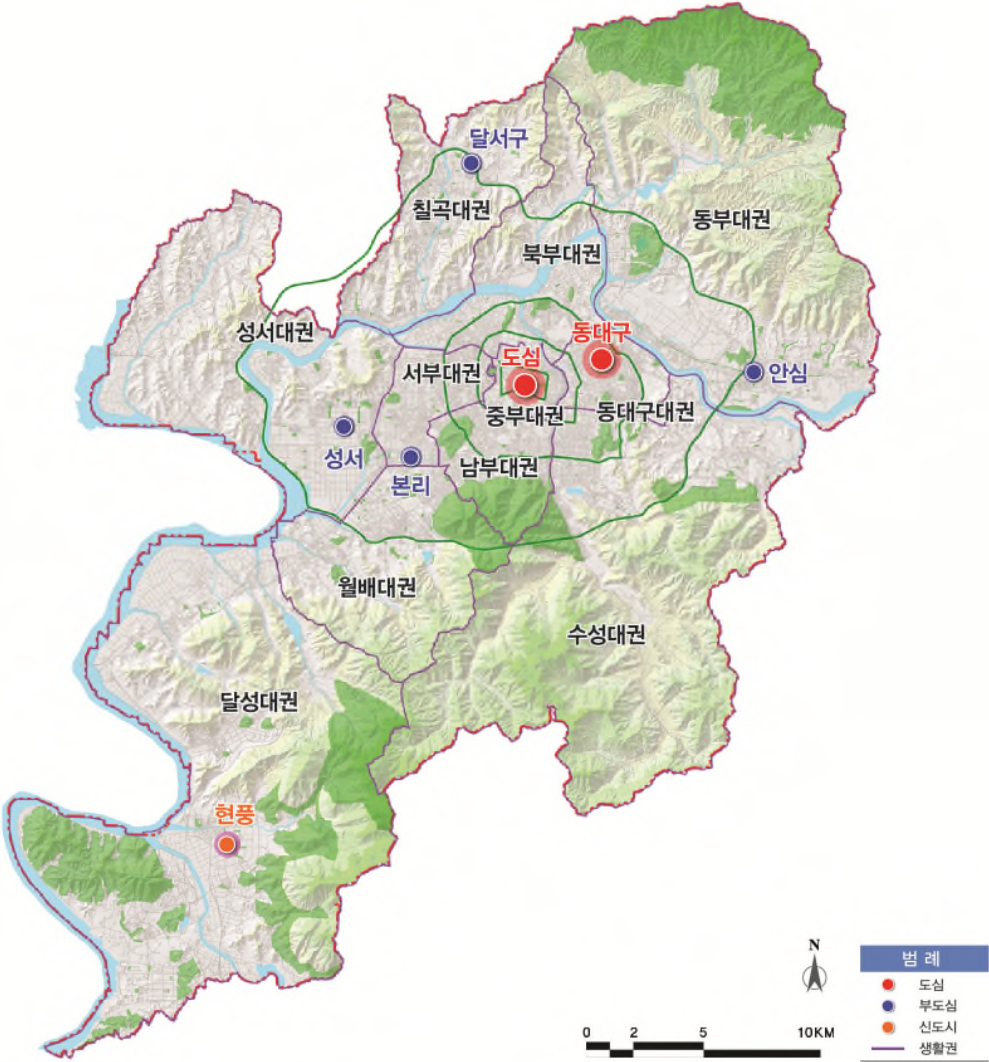
3) 공간구조의 문제점 진단

❖ 중심지체계와 생활권계획의 연계 강화 필요

- 공간구조상 2도심, 4부도심, 1신도시의 7개 중심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생활권은 11개의 대생활권으로 계획되었으며, 남부·북부·수성·월배 생활권은 도심·부도심이 아닌 지구중심 기능만 결정되어 있음
- 따라서, 각 생활권별 자족 기능 수행 및 특화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심지체계와 생활권계획의 연계가 필요함

[표 2-3-3] 기정 계획의 중심지체계와 생활권

생활권	중 부	동대구	동 부	서 부	성 서	칠 곡	달 성	남부, 북부, 수성, 월배
중심지	도심	도심	부도심 (안심)	부도심 (본리)	부도심 (성서)	부도심 (칠곡)	신도시 (현풍)	-



[그림 2-3-2] 부도심 및 생활권

❖ 2도심체계 유지의 필요성 검토

- 1997년 3차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을 중심성 유지와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등 증대되는 도심기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동대구 도심을 추가로 도입하여 2도심 체계로 유지해 왔음
- 그후 공항이전후적지 개발, 서대구 KTX역사 신설 등 도시성장과 공간기능의 변화를 고려할 때 2도심 체계 유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타도시의 경우에도 부산·대전·광주광역시가 2도심 체계를 채택하였으나, 기존 도심의 공동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유발되고 있어 중심지체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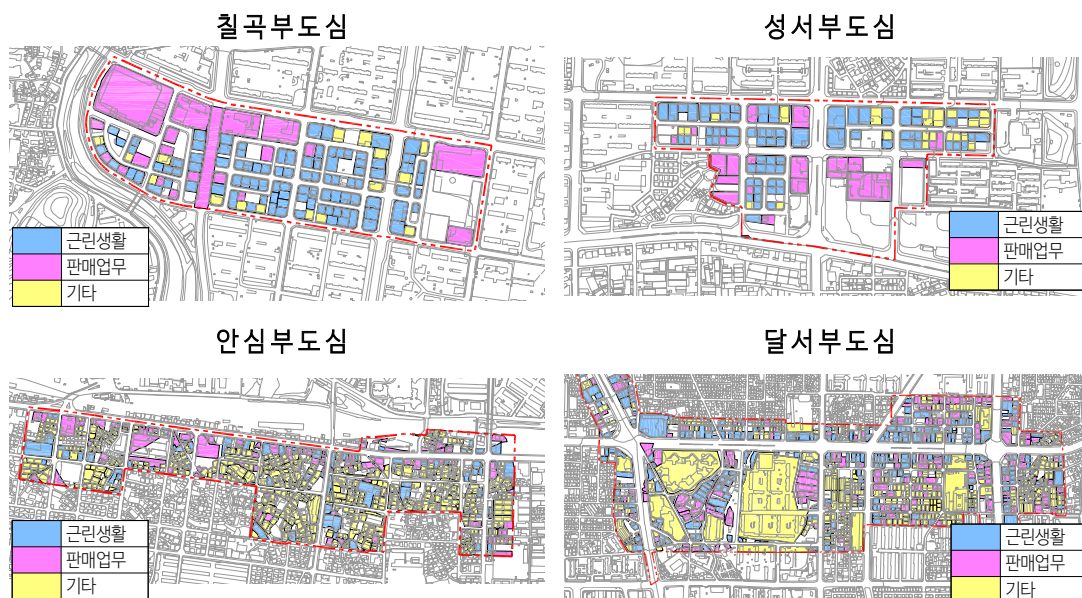
[표 2-3-4] 특·광역시별 중심지체계 비교

(단위 : 만인)

구분	계획인구	도심	부도심
서울	1,020	• 3(도성, 영등포, 강남)	• 7(용산, 청량리, 창동, 상암, 마곡, 가산, 잠실)
부산	410	• 2(광복, 서면)	• 6(강서, 사상, 하단, 동래, 해운대, 덕천)
인천	350	• 4(동인천, 청라, 부평, 송도)	• 3(영종, 소래, 검단)
대전	185	• 2(원도심, 둔산)	• 10(유성, 신탄진, 진잠, 노은, 도안, 용문, 중리, 오류, 관평, 가오)
광주	180	• 2(도심, 상무)	• 2(첨단, 송정)
울산	145	• 1(중부)	• 4(방어진, 농소, 언양, 온양)

❖ 중심성이 강화된 부도심의 설정

- 칠곡·성서 부도심은 택지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조성된 근생·판매·업무시설이 80%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안심과 달서부도심은 50% 이하로 나타남
- 특화된 다핵도시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판매·업무기능이 중심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중심지 활성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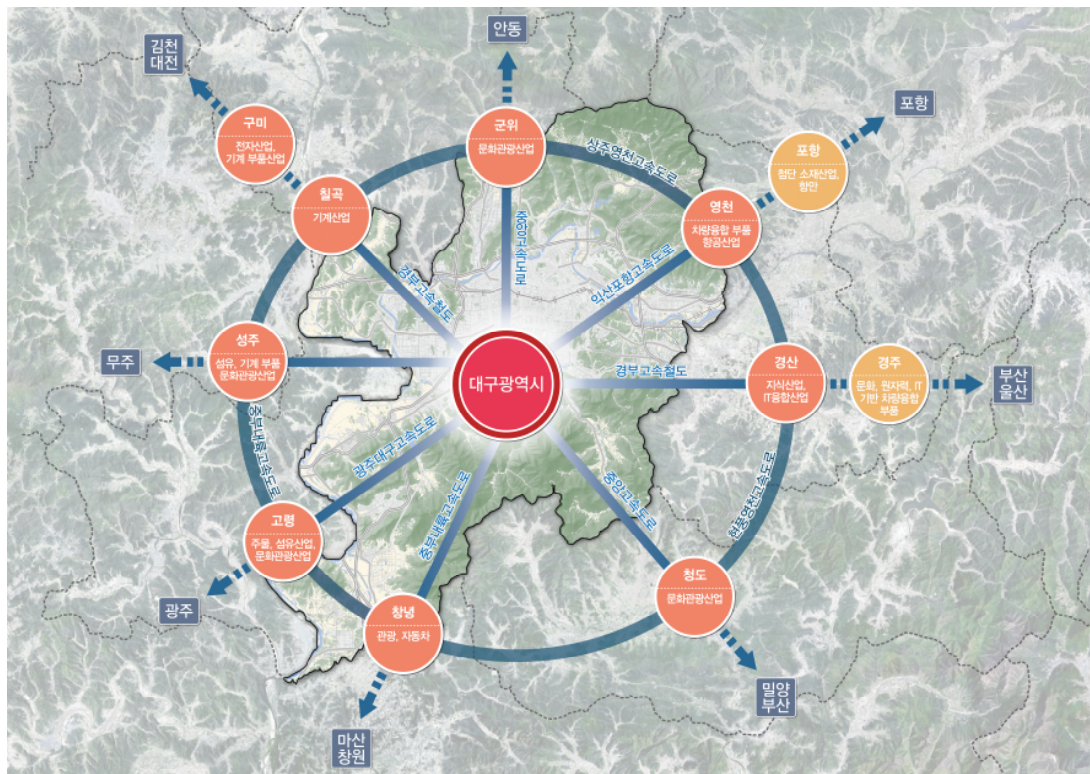
[그림 2-3-3] 부도심 건축물 용도별 현황도

❖ 광역권 도시와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 중심지 재설정 필요

- 서대구KTX역사 신설 및 공항이전후적지 개발 등 주변 도시와의 유기적인 연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광역연계도시와 원활한 연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접근체계 및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한 중심지 재검토가 필요함

[표 2-3-5] 대구 광역권 도시 현황

구 분	도 시	연 결 축
동부권	• 경산, 영천, 포항, 경주, 울산	• 대구~포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등
서부권	• 성주, 고령, 광주	• 광주~대구고속도로, 국도30호선, 국도26호선
남부권	• 청도, 창원, 창원, 부산	• 대구~부산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국도5호선
북부권	• 구미, 김천, 군위, 안동	•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국도5호선



[그림 2-3-4] 광역권 도시 현황도

❖ 녹지축의 도심 유입 촉진 방안 모색

- 기성시가지 내 건축물 밀집으로 외곽환상녹지축과 수변축의 도심 유입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 열섬현상 및 국지성 호우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녹지공간의 도심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공간구조 체계 구상이 필요함

나. 도시공간구조

1) 기본방향 설정

❖ 지역의 활용가능 자산 중심의 역할 분담 강화

- 도시 발전은 주변지역과 차별화된 각 지역의 자연 및 인문환경에 적합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결과임
- 따라서, 도시공간구조의 형성에 있어 각 지역의 활용가능한 자산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인 대응할 수 있는 역할분담의 방안을 마련함

❖ 중심지 형성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공간구조체계 정비

- 기성시가지내 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중심지 육성에 한계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특성과 주변 생활권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목표연도 내에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공간구조 체계를 개편함
- 다만, 입지적 요인 및 다양한 개발사업 등에 따른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은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유도거점을 도입함

❖ 광역권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반영한 중심지 설정

- 대구는 영남권의 행정·문화 중심기능을 장기간에 걸쳐 담당하였고, 방사선도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 대구광역권 도시와 기능적인 연계가 용이함
- 각 권역별로 연결체계 및 광역권 도시의 발전방향과 부합되는 지역을 채택하여 주변 광역도시와 산업·문화·생활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중심지를 설정함

❖ 발전축은 중심지와 광역도시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설정

- 도시의 발전축은 중심지와 주변도시와의 연계를 감안하여 주발전축과 부발전축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 주발전축은 광역적인 도시기능 및 중심지의 영향권을 감안하여 설정함
- 부발전축은 각 중심지와 주변도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상호 보완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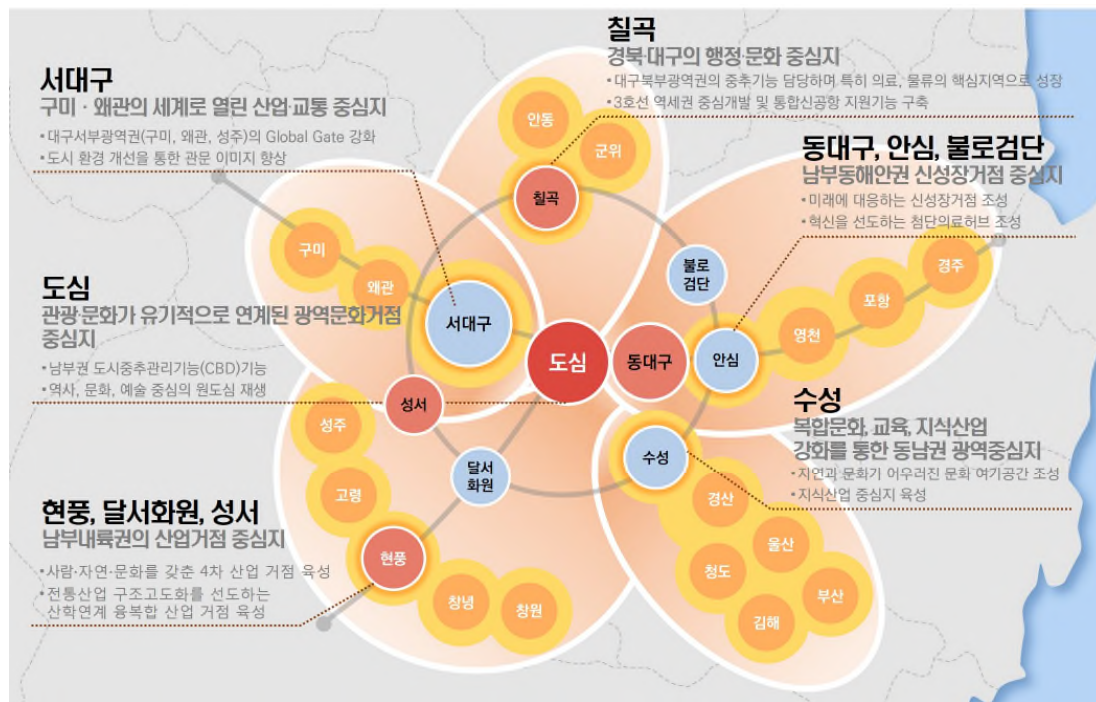
❖ 보전축은 녹지공간이 도심내로 유입되도록 설정

- 기후변화 및 여가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시가지 내에 적정 규모의 보전축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성시가지내에 녹지로 활용 가능한 가용지가 부족하여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음
- 기성시가지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가용지 부족 문제 해소와 기성시가지 외곽지역의 청정 자연환경이 도심으로 유입이 촉진 될 수 있도록 하천, 도로 등을 활용하여 도심내로 유입 될 수 있도록 보전축을 설정함

2) 공간구조 구상

가) 대구 PLAN 반영 방향

- 대구PLAN의 공간구조는 광역중심, 광역연계거점, 지역거점으로 제시하였으므로, 각 부문별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반영 방향을 설정함
- 대구PLAN의 반영 방향
 - 도심은 관광·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광역문화거점으로서, 남부권 도시중추관리기능 및 역사, 문화, 예술 중심의 원도심을 재생함
 - 서대구는 구미·왜관을 포함하는 중심지로 대구 서부광역권(구미, 왜관, 성주)의 Global Gate 기능 강화 및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한 관문이미지를 향상시킴
 - 칠곡은 경북의 행정과 문화를 대구와 연결시켜 대구 북부광역권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며, 특히 의료·물류의 핵심지역으로 성장, 도시철도 3호선 역세권개발 및 통합신공항 지원기능을 구축함
 - 동대구, 안심, 불로검단은 남부 동해안권의 인재와 의료가 만나 미래에 대응하는 신성장 거점과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의료허브를 조성함
 - 수성은 동남권의 광역중심지로서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지식산업 중심지를 육성함
 - 현풍, 달서화원, 성서는 남부내륙권의 산업거점으로 성장하여 사람·자연·문화를 갖춘 4차산업 거점 및 전통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하는 산학연계 융복합 산업 거점을 육성함



[그림 2-3-5] 대구 PLAN 반영 방향

나) 중심지체계

❖ 지정 2도심 체계에서 1도심 체계로 전환

- 시가지 규모가 반경 10km내외이고 시가지 형성특징이 1차순환선 내부지역에 행정 및 판매기능이 도시전역을 서비스하고 있는 특징을 반영하여 1도심 체계를 적용함

❖ 부도심과 성장유도거점 설정

- 각 권역별 중심지 기능은 광역권 도시와의 연계 및 중심지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대안을 평가하여 선정함
- 광역권 도시와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고속도로 및 철도와 연결성을 고려하여 중심지체계를 검토함
- 실현가능성의 제고를 검토하기 위해 계획적 개발을 통한 실현성, 활용가능 토지의 분포 현황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선정함

※ 성장유도거점 : 기성시가지내 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능의 집적이 필요한 지역에 개발계획 등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중심지 개념임

다) 도시발전축

❖ 주발전축은 경부선축을 활용

- 주발전축은 광역권 도시와 연계 및 지역의 중심지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축으로 설정함
- 광역교통 연결체계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축이 가장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경부선축을 주발전축으로 설정함

❖ 부발전축은 중심지의 연계를 감안하여 방사선 도로를 활용

- 부발전축의 역할은 지역내 중심지간의 기능적인 연계 및 각 방향별 광역권 도시와의 연계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부발전축의 설정은 광역권 연계강화 측면과 도시내부 중심지간의 연계강화 측면을 고려한 대안을 설정하여 평가함

라) 자연보전축

❖ 자연보전축은 외곽녹지축, 수변축, 경관가로축으로 설정

- 대구의 녹지축은 외곽 녹지축과 시가지를 통과하는 금호강 및 신천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시가지내 녹지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있어 보전축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기정계획의 외곽녹지축과 수변축을 유지하고, 수변축을 중심으로 보전축이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경관가로축을 설정함

나) 대안 평가

- 평가결과, 대안1이 각 중심지와 광역권과의 기능연계 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장유도거점으로 설정한 5개 중심지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대안1이 대도시의 도심 혼잡완화 및 지역별 특색 있는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파급효과 극대화에 유리함
- 도시발전축은 광역권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대안1이 유리하며, 지역내부의 연계강화를 위해서는 대안2도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발전축은 경부선축을 유지하고, 부발전축은 남북을 연결하는 2개축과 3·4차순환선을 활용한 순환축을 반영함
- 자연보전축은 기 형성된 외곽 녹지축과 수변축을 유지하고, 기성시까지 내부로 녹지축의 유입을 위한 대안으로서 기존 도로를 활용한 가로녹지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표 2-3-7] 공간구조 대안 평가

구 분	대 안 1	대 안 2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방향별 중심지 설정으로 발전축을 활용한 광역권과의 기능적 연계 강화에 유리 • 인구 275만인에 10개의 중심지 설정으로 인구배분 및 지역균형발전 유도에 유리(25만인 내외) • 시가지 형성특징이 유사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중심지 형성으로 특화발전에 유리 • 도로여유용량을 활용한 가로녹지축은 실현가능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선을 중심으로 중심지가 연결되어 있어 내부의 연계성 강화에 유리 • 기 조성된 중심지를 활용함에 따른 단기간에 실현성 확보가 용이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유도거점의 형성에 장기간이 소요될 소지가 높음 • 순환선에서 벗어난 중심지 입지로 내부 연계성 강화에 제약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가 5개소에 불과하여 지역별 인구배분 등에 불리(서구, 달서구, 동구 일부 지역) • 광역권 도시와의 연계를 위한 방향별 역할 분담에 제약이 있음 • 중심지별 시가지형성특징이 차이가 있어 특화기능 도출에 제약이 있음 • 내부녹지축 형성을 위하여 점적인 공원의 네트워크 형성 곤란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의 도심 혼잡완화 및 각 지역별 특색있는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파급효과가 지역활성화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심지체계는 권역별 세분을 반영한 대안1안이 적합함 • 발전축은 광역권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대안1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내부의 연계강화를 위해서는 대안2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발전축은 경부선축을 유지하고, 부발전축은 남북을 연결하는 2개축과 4차순환선을 활용한 순환축을 반영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성장유도거점으로 설정한 5개지역은 구체적인 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중심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정비는 중심지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 • 보전축은, 기 형성된 외곽 녹지축과 수변축을 유지하고, 기성시까지 내부로 녹지축의 유입을 위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 산지형 공원의 연결에는 가용지 확보가 곤란한 점을 감안할 때 도로를 활용한 네트워크 형성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대안1을 적용 	

4) 도시공간구조 설정

가) 중심지체계

❖ 중심지체계(1도심, 4부도심, 5성장유도거점)

- 중심지체계는 지역특성, 지역발전계획, 광역권 연계 등을 감안하여 1도심, 4부도심, 5성장유도거점으로 계획함
- 도심은 읍성을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쳐 중심기능을 수행한 지역을 반영하여 장소성과 역사성의 유지발전을 도모함
- 부도심은 상업지역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 중 중심성과 각 방향별 접근성 및 지역 개발 사업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칠곡, 성서, 동대구, 현풍 4개소로 계획함
- 성장유도거점은 기성시가지내 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능의 집적이 필요한 지역으로 서대구, 월배화원, 수성, 안심, 불로검단 5개소로 계획함

[표 2-3-8] 중심지체계와 광역권 연계

구 분	중심지	광역권	시가지개발특징	비 고
도심	도심	대구광역권	읍성 중심의 자연발생시가지(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	
부도심	칠곡	군위, 안동	택지개발	칠곡I.C
	성서	성주, 김천	택지개발, 산업단지	서대구I.C
	동대구	서울, 부산	토지구획정리, 역세권 개발사업	동대구KTX
	현풍	창녕, 창원	복합개발(테크노 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등)	현풍I.C
성장유도거점	서대구	구미, 대전	산업단지, 토지구획정리	서대구KTX
	달서화원	고령, 광주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	남대구I.C
	수성	청도, 부산	택지개발, 복합개발(의료지구 등)	수성I.C
	안심	경산, 경주	택지개발, 복합개발(혁신도시 등)	동대구I.C
	불로검단	영천, 포항	공항이전 후적지	팔공산I.C

나) 발전축 및 보전축

❖ 도시발전축(1주발전축, 5부발전축)

- 도시발전축은 서울~부산을 연결하는 축을 중심으로 광역권 도시와 연계를 반영함
- 주발전축은 도시기능의 활동량이 가장 높은 경부선으로서 구미(대전)~서대구~도심~동대구~안심~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축으로 설정함
- 부발전축은 서대구~칠곡, 서대구~성서, 서대구~달서화원~현풍, 동대구~불로검단, 동대구~수성 5개로 설정함

[표 2-3-9] 도시발전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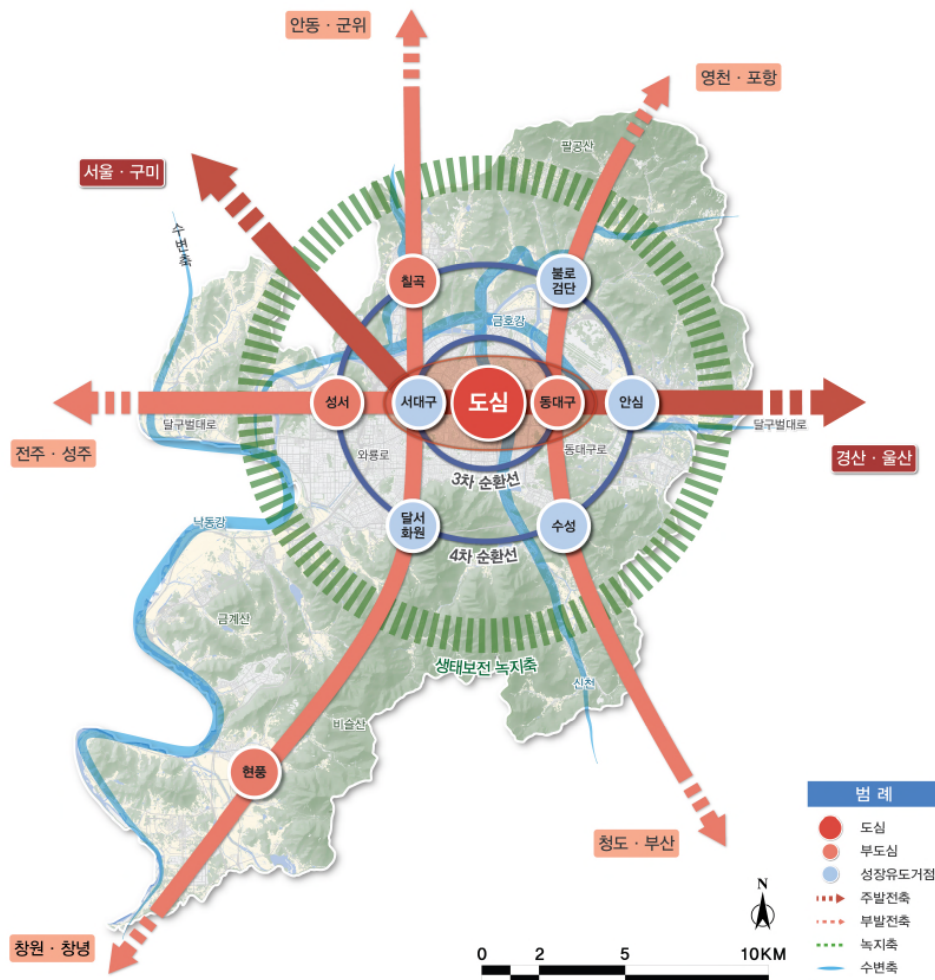
구 분	발 전 축	비 고
주발전축	• 경부선축(서대구~도심~동대구~안심)	
부발전축	• 서대구~칠곡, 서대구~성서, 서대구~달서화원~현풍, 동대구~불로검단, 동대구~수성	

❖ 자연보전축(외곽녹지축, 수변축, 가로녹지축)

- 자연보전축은 외곽녹지축, 수변축, 가로녹지축으로 계획함
- 외곽녹지축은 팔공산·주암산 등 외곽 산지를 생태보전녹지축으로 설정하고, 도로 등에 의해 단절된 지역은 녹지축을 연결함
- 수변축은 시가지를 관통하는 낙동강, 신천, 금호강을 활용하고, 하천변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함
- 외곽녹지축 및 수변축의 시가지 유입을 촉진하고 간선가로에 녹색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로녹지축을 설정함

[표 2-3-10] 자연보전축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외곽 녹지축	팔공산, 병풍산, 주암산, 청룡산, 비슬산, 대니산, 명봉산 등	
수 변 축	낙동강, 금호강, 신천	
가로녹지축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와룡로	



[그림 2-3-6] 공간구조구상도

다. 중심지별 역할

1) 지역특성을 감안한 역할 설정

❖ 중심지별 자족성 확보를 위한 역할 강화

- 통행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구의 통행패턴은 직·주분리로 인하여 통행량이 출·퇴근시간에 집중되어 교통시설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각 위계별 중심지의 공간기능을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하여 도시의 자족성과 다양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중심지의 역할을 강화함

[표 2-3-11] 중심지의 역할

구 분		활용가능 자원	중심지의 역할
도 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도시 : 광역권 • 대구읍성복원, 삼성창조캠퍼스, 근대문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D(도시 중추관리) 기능 • 문화 및 생활형산업
부도심	철 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도시 : 군위, 안동 • 융합R&D특구, 농업기술원이전터개발, 도남공공주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 융복합, 의료, 뷰티 산업기능 • 농산물 물류기능 지원 • 공항 배후 기능
	성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도시 : 성주, 김천 • 산업단지재생, 산학융합특구조성, 죽곡택지개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계 산업구조 고도화 기능
	동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도시 : 서울, 부산 • 동대구KTX역세권개발, 동대구벤처밸리, 엑스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 업무, 금융 비즈니스산업 기능
	현 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도시 : 창녕, 창원 •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달성테마관광단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 산업 기능 • 자연환경체험관광 기능
성장유도거점	서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도시 : 구미, 대전 • 서대구KTX역세권개발, 산업단지재생, 재정비촉진지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지원기능 • 광역 네트워크 기능
	달서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도시 : 고령, 광주 • 월배도시개발, 산업단지재생, 수목원확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건강, 생활지원기능
	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도시 : 청도, 부산 • 수성의료지구, 대구대공원, 문화레저클러스터조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지식기반산업 기능 • 문화, 레저 기능
	안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도시 : 경산, 경주 •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팔공테마관광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힐링, 물류산업 기능
	볼로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도시 : 영천, 포항 • K2이전후적지개발, 금호워터 폴리스, 이시아폴리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복합단지 기능 (섬유, 로봇, Mice산업 등)

❖ 중심지별 역사문화기능 강화

-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 및 여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산의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됨
- 역사적 가치를 가진 자원들을 적극 발굴 및 활용하여 적정 규모의 문화기능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함
- 시민들의 공간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 자산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역사·문화기반이 강화되어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로 중심지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

2) 광역권 도시와 중심지간 특화 기능의 연계 강화

❖ 광역권 연계도시 간의 기능적 연계

- 도시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변의 광역권 도시와 기능적인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각 중심지가 광역권 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표 2-3-12] 광역권 연계도시 현황

구 분	도 시	산업특징	연 계 축	중심지
동북권	영 천	항공산업	익산포항고속도로	불로검단
	포 항	첨단소재산업		
동부권	경 산	지식산업	국도35호선,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안심
	경 주	문화, 원자력		
동남권	청 도	문화·관광	국도35호선,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수성
	부 산	부산항		
서남권	창 녕	농업, 관광, 자동차	중부내륙고속도로, 국도5호선	현풍
	창 원	기계부품		
서부권	고 령	문화·관광	광주대구고속도로, 국도26호선	달서화원
	광 주	자동차, 에너지		
성서권	성 주	기계부품	국도30호선	성서
	김 천	혁신도시		
서북권	구 미	기계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지방도923호선	서대구
	대 전	R&D		
북부권	군 위	문화관광	국도5호선, 중앙고속도로	칠곡
	안 동	문화·관광, 한방바이오		

❖ 대중교통을 기반으로 한 접근성 향상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생활권 및 광역도시권내에서 차량을 이용한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구성원들의 다양한 대면기회를 통해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 될 수 있는 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높음
- 따라서, 중심지로의 주 접근 수단은 차량을 활용한 접근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포함한 녹색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정비하여 다양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상호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3)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보전축 정비

❖ 기성시가지로 녹지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차로폭 축소 구간 확대

- 기후변화 및 환경 수요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외곽녹지축과 수변축이 시가지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의 용도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녹색교통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개인 차량의 감소 유도를 통해 기성시가지에 녹지 유입을 촉진하는 차로폭 축소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길 확보

- 대구 외곽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산악지형이 분포하고 있고 바람길이 외곽의 산지에서 생성된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신천, 금호강을 따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바람길의 도심 유입을 촉진할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높음
- 바람길은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외곽의 신선한 공기의 시가지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천 및 금호강 주변의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 토지이용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함

❖ 수변녹지축과 거점 공원의 유기적 연계 유도

- 대구의 2차순환선 주변지역은 구릉지로 형성된 시가지이고, 3차순환선 주변지역에 두류공원, 침산공원, 범어공원 등 산지형공원(10개소)이 분포하고 있음
- 녹지축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산지형 공원의 녹지축 연계를 고려한 시설을 확충함

❖ 단절된 외곽녹지축 연결

-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로 인하여 단절된 외곽녹지축을 생태통로를 통하여 연계함
- 외곽 녹지축이 단절된 담티고개, 팔조령, 험티재, 천수봉 등에 대해 생태통로 연결을 점진적으로 추진함

2.3.2. 생활권 설정

가. 현황분석

1) 기정계획 검토

❖ 인구배분계획

- 기정 계획에서는 11개 생활권의 목표인구는 2,750천인의 배분은 각 생활권별로 120천인에서 420천인으로 배분하였으나, 인구 규모의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3.5배이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인부 배분이 필요함
- 각 생활권별로 배분된 인구와 현황인구를 검토한 결과 서부, 월배, 동대구 생활권은 인구가 외부로 유출될 필요가 있으나, 개발사업에 의한 수용가능인구가 각각 28천인, 32천인, 15천인이 유입될 수 있어 생활권별 인구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됨
- 기 확정된 개발사업의 수용인구를 활용하여 각 생활권별 인구를 검토한 결과 북부, 수성, 성서, 달성 생활권은 인구가 유입되어야 하고, 그 외 지역은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표 2-3-13] 기정계획 인구배분계획

(단위 : 천인)

구 분	현 황 ¹⁾ (A)	계 획 ²⁾ (B)	증 감 (B-A)	개발사업인구 ³⁾ (C)	수용인구 (D=A+C)	차 (B-D)
합 계	2,488	2,750	262	455	2,943	-193
중 부	109	120	11	22	131	-11
동 부	222	270	48	98	320	-50
서 부	282	270	-12	28	310	-40
남 부	216	220	4	20	239	-19
북 부	224	290	66	62	289	1
수 성	375	420	45	27	402	18
동대구	213	200	-13	32	245	-45
월 배	342	310	-32	15	357	-47
성 서	220	250	30	11	231	19
칠 곡	221	230	9	50	271	-41
달 성	64	170	106	90	154	16

주1) 현황인구는 2015년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외국인 제외)

주2) 계획인구는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의 2020년 목표연도 인구임

주3) 개발사업 수용인구는 2015년말 현재 사업 승인된 사업지구 개발계획을 반영

❖ 인구밀도

- 2015년 말 현재 기 결정된 주거용지의 면적은 121.064km²이며 현황인구가 2,488천인으로 평균인구밀도가 205인/ha이며, 현 주거용지를 유지하면서 계획인구 2,750천인을 수용할 경우 인구밀도는 227인/ha로 예측됨
- 기정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을 기준으로 인구밀도를 검토한 결과 현황인구밀도가 대구시 평균인 205인/ha보다 낮은 생활권은 동부, 남부, 달성 생활권으로 분석됨
- 계획인구 2,750천인이 달성되었을 경우의 평균인 인구밀도인 227인/ha보다 낮은 생활권은 동부, 남부, 월배, 달성생활권으로 분석됨
- 생활권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생활권은 서부생활권(296인/ha)이며, 가장 낮은 생활권은 달성생활권(53인/ha)으로 차이가 5.6배 발생하고 있음
- 보전용도는 704.203km²가 분포하고 있으나, 중부생활권(0.633km²), 서부생활권(3.494km²), 동대구생활권(3.514km²)은 5km²이하의 소규모가 입지하고 있어 생활권별 인구밀도 관리를 위한 가용지 확보에 제약이 있음
- 따라서, 생활권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정주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생활권별로 적정 인구밀도 관리성이 대두됨

[표 2-3-14] 생활권별 인구밀도 검토

(단위 : 천인, km², 인/ha)

구 분	인 구		주거용지 ³⁾ (C)	인구 밀도		보전 용도	비 고
	현 황 ¹⁾ (A)	계 획 ²⁾ (B)		현 황(A/C)	계 획(B/C)		
합 계	2,488	2,750	121.064	205	227	704.203	
중 부	109	120	4.380	248	273	0.633	
동 부	222	270	16.133	137	167	156.575	
서 부	282	270	9.526	296	283	3.494	
남 부	216	220	10.625	203	207	10.285	
북 부	224	290	10.316	217	281	27.031	
수 성	375	420	16.493	227	254	166.939	
동대구	213	200	7.858	271	254	3.514	
월 배	342	310	13.861	246	223	42.042	
성 서	220	250	10.407	211	240	73.677	
칠 곡	221	230	9.431	234	243	41.077	
달 성	64	170	12.034	53	141	178.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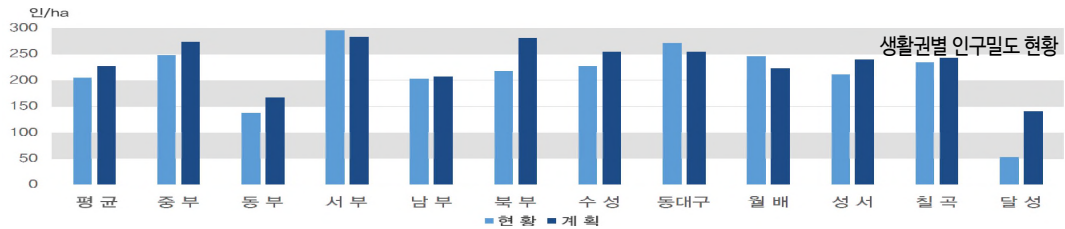
주1) 현황인구는 2015년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

주2) 계획인구는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의 2020년 목표연도 인구임

주3) 주거용지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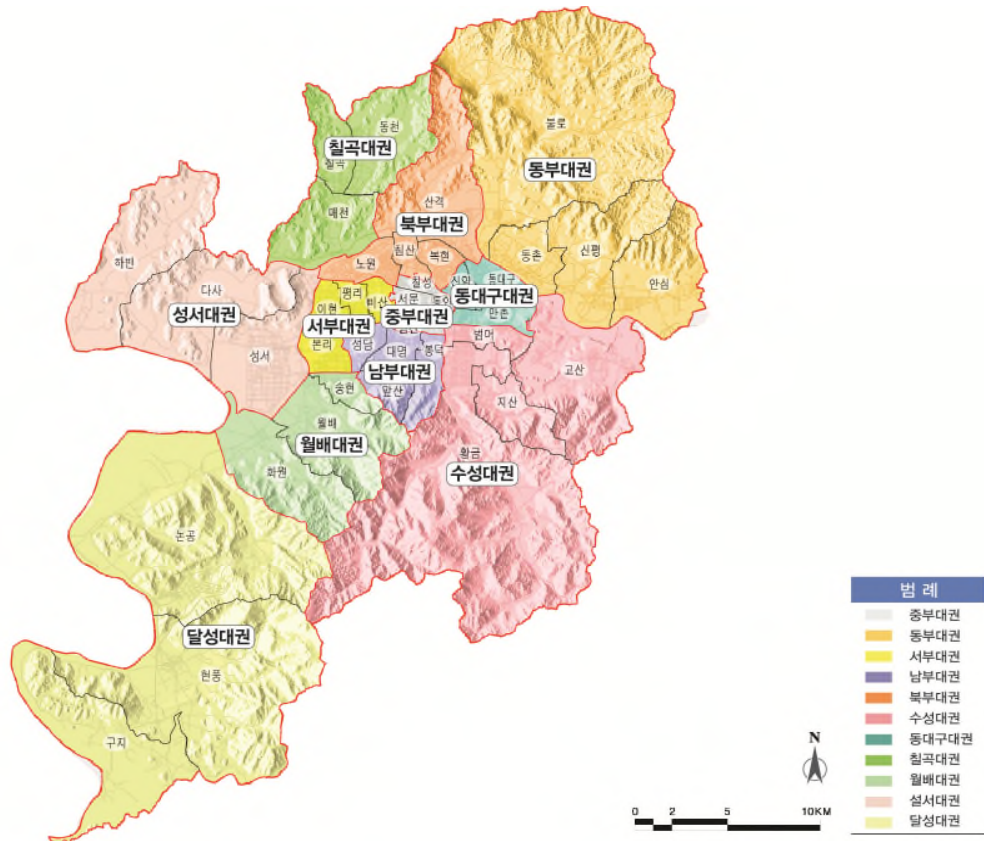
❖ 도시공간구조와 연계한 생활권 설정 필요

- 기정 계획에서는 7개 중심지 체계인 2도심 4부도심 1신도시인 반면, 생활권은 11개로 구분하여 생활권계획과 중심지체계가 불일치함
- 생활권과 중심지체계의 불일치는 각 생활권의 특화발전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생활권 계획과 도시공간구조의 중심지체계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여건변화를 반영한 생활권별 발전방향 설정 필요

- 기본계획 수립이후 통합신공항 이전, 정부의 기성시까지 재생 활성화정책, 서대구 KTX역 건립 등 다양한 여건변화가 발생되었음
- 지역의 특색 있는 자산과 연계하여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활권 발전방향 수립이 필요함



[그림 2-3-7] 생활권 구분도(기정계획)

2) 생활권 경계 설정 검토

❖ 생활권 설정 기준으로서 구·군 행정구역 경계는 부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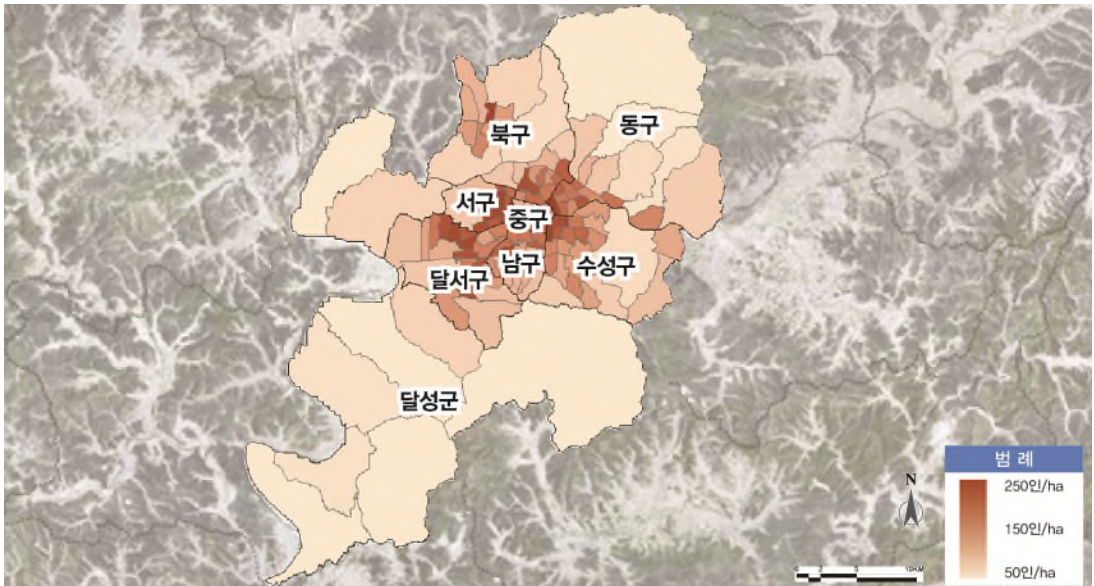
- 행정구역별 인구 및 시가화 구역의 면적이 달성군이 426.59km²로 가장 넓은 반면, 중구는 7.06km²로 면적차가 60배에 달하고, 인구분포는 중구가 81천인으로 가장 적고, 달서구가 602천인으로 7배의 차를 보이고 있음
- 시가화 구역(주거, 상업, 공업용지)의 면적차도 7배에 달하고 있어 각 생활권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가화구역 면적을 재검토가 필요함

[표 2-3-15] 구·군별 인구밀도 (단위 : km², 천인, 인/ha)

구 분	행정구역(A)	시가화구역 ¹⁾ (B)	인 구 ²⁾ (C)	밀 도		비 고
				행정구역 (C/A)	시가화 (C/B)	
합 계	883.48	180.04	2,488	28.16	138.19	
중 구	7.06	6.50	81	114.73	124.62	
동 구	182.16	25.44	350	19.21	137.58	
서 구	17.35	12.99	206	118.73	158.58	
남 구	17.44	9.15	161	92.32	175.96	
북 구	94.08	27.53	443	47.09	160.92	
수성구	76.46	20.20	452	59.12	223.76	
달서구	62.34	34.69	602	96.57	173.54	
달성군	426.59	43.53	193	4.52	44.34	

주1) 시가화구역의 면적은 국토교통통계누리, 인구는 2015년말 주민등록 현황자료(통계청)

주2) 인구는 2015년말 주민등록인구임



[그림 2-3-8] 행정구역별 인구밀도 분포 현황

❖ 하천, 고속철도 등 지형지물에 따른 영향 낮음

- 생활권 구분에 활용이 가능한 지형지물로서는 하천 3개소, 고속도로 7개노선, 철도 2개노선이 입지하고 있음
- 하천 중 금호강은 경부고속도로, 철도(경부선, 대구선)와 선형이 중복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
- 신천과 팔거천은 금호강에 유입되는 하천으로 북측지역과 남측지역에서 각각 동서방향으로 생활권을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음

[표 2-3-16] 대구시 지형지물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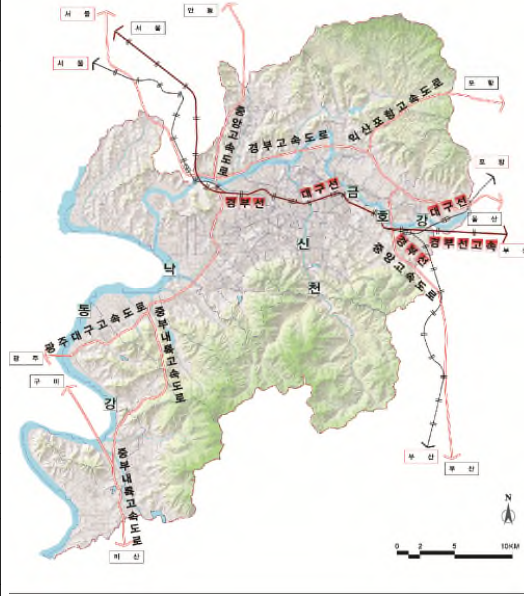
구 분	하 천	고속도로	철 도
개 소	3	7	2
시설명칭	• 금호강, 신천, 팔거천	• 경부, 대구포항, 중앙(칠곡, 수성), 중부내륙(지선, 본선), 올림픽	• 경부선, 대구선

※ 하천중 개발제한구역내 분포하는 하천 및 복개된 하천은 제외

- 하천 등 지형지물에 접한 행정동간 발생통행량과 유입통행량 비율은 11.47%으로 분석되나, 팔거천은 31.91%로 통행량이 평균보다 높아 생활권 경계설정 기준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2-3-17] 지형지물에 따른 행정동별 통행특성

(단위 : trip/일, %)

구 분		발생통행량	유입통행량	비 율	비 고
합 계		1,366,719	156,807	11.47	
금호강	북측→남측	175,570	24,266	13.82	
	남측→북측	334,316	26,128	7.82	
신 천	동측→서측	167,009	17,373	10.40	
	서측→동측	212,971	18,584	8.73	
팔거천	동측→서측	68,303	21,795	31.91	
중부내륙 (지선)	서측→동측	123,720	17,750	14.35	
	북측→남측	107,048	16,029	14.97	
경부선	남측→북측	150,006	14,516	9.68	
	북측	18,347	183	0.99	
	남측	9,429	183	1.94	

자료 : 국가교통db, 대구권 목적 od

❖ 행정동별 통행특성 반영이 적합

- 대구권 목적OD 분석결과 총 통행량은 4,999,715trip이며, 이중 내부 통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행정동이 유입, 유출 각각 62개동과 61개동임

[표 2-3-18] 대구권 목적OD 분석결과

(단위 : trip/일, %, 개동)

구 분	유 입			유 출		
	통행량	내 부	비 율	통행량	내 부	비 율
합 계	4,999,715	1,552,212	31.05	4,999,715	1,533,623	30.67
30%이상	62			61		
30%이하	77			78		

자료 : 국가교통db, 대구권 목적 od

나.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1) 생활권 범위 설정

가) 생활권 설정 기준 검토

❖ 관련 이론

- 생활권은 자족적 기능을 갖는 업무 및 생산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정함
- 다핵도시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각 생활권은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함

[표 2-3-19] 생활권 설정기준

구 분	소 생활권	중 생활권	대 생활권
설정 기준	• 근린생활권 단위	• 대중교통시설 중심	• 도심 및 부도심
공간적 범위	• 보행 10분 이내	• 대중교통 10-15분	
인구 규모	• 1~2만	• 5~10만	• 20~30만
토지이용특성	• 주거환경 보호	• 지역중심	• 주거, 상업, 생산시설
특 징	• 초·중학교 통학권 • 행정동 단위 일치 유도	• 혼합적 토지이용 • 지역중심 역할	• 도심 및 부도심 성격 • 구단위 행정구역과 일치
주요 시설	•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초등학교, 유치원, 약국, 마을회관, 근린상점, 은행	• 구청, 경찰서, 소방서, 중, 고등학교, 도서관, 보건소	• 시청, 대학교, 연구기관, 종합병원, 문화공연장, 백화점, 유통센터

❖ 관련 법령

- 법령에서 권역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 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음
- 권역의 규모는 5~28만인 내외로 설정하고 있음

[표 2-3-20] 생활권 설정 관련 법령

구 분	기 준	비 고
공직선거법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원정수 300명, 인구편차 2:1 선거인구 : 42,320천인(2016년말 인구) 선거구당 인구 : 14만~28만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28만인
지방자치법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 : 도시형태를 갖춘 인구 5만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만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3만인, 면적 5km²이상에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 5개소 당 소방서 1개소 소방서 1개소당 15만~25만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25만인

나) 생활권 설정

❖ 설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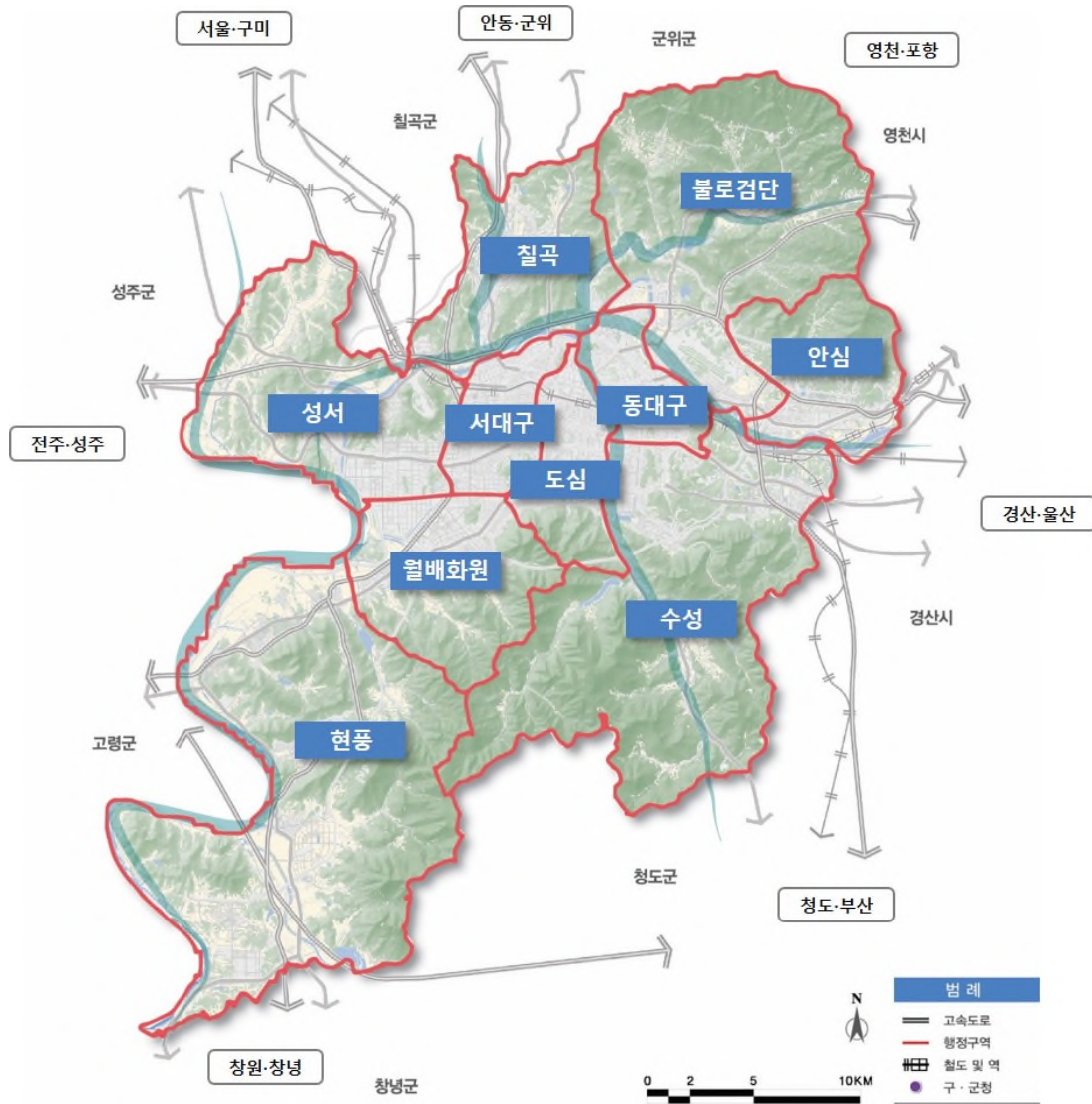
- 인구규모는 자족성 확보 및 정주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적정 기반시설 공급 등을 감안하여 20만인~35만인으로 설정함
- 생활권의 경계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동간 통행특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설정하며, 도시공간구조의 중심지체계를 반영함

❖ 생활권 설정

- 생활권은 도시공간구조의 중심지체계를 반영하여 10개 생활권으로 설정함

[표 2-3-21] 생활권 설정

생활권	행 정 동	경 계 설 정
도 심	• 성내, 동인, 남산, 대명 등	• 행정구역(구경계), 신천, 2차순환선
동대구	• 신암, 신천, 범어, 만촌 등	• 신천, 금호강, 경부고속도로, 달구벌대로
칠 곡	• 태전, 읍내, 동천, 구암 등	• 행정구역(시·동경계), 금호강
성 서	• 신당, 이곡, 장기, 다사읍 등	• 행정구역(시경계),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성서공단로, 구마로
현 풍	• 옥포, 논공, 현풍, 유가, 구지 등	• 행정구역(시·군·읍면경계)
서대구	• 평리, 비산, 내당, 본리 등	• 행정구역(구경계), 금호강,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2차순환선, 구마로
월 배 화 원	• 송현, 상인, 진천, 화원읍 등	• 행정구역(시·구·군·읍면경계), 성서공단로, 구마로
수 성	• 고산, 황금, 지산, 범물 등	• 행정구역(시·구·군·동경계), 신천, 달구벌대로
안 심	• 안심, 방촌 등	• 행정구역(시·동경계), 금호강, 율하천, 경부고속도로
불 로 검 단	• 불로봉무, 동촌, 공산 등	• 행정구역(시·동경계), 금호강, 율하천, 경부고속도로



[그림 2-3-9] 생활권 설정도

2) 인구배분계획

가) 인구배분 기준

❖ 현황인구 변화추세, 개발가능지, 개발사업 고려

- 인구증감추세, 개발 가능지, 개발사업 등을 감안하여 배분함
- 적정인구밀도 설정은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함
- 역세권 등 다양한 용도의 기능이 복합될 수 있도록 인구를 배분함

나) 인구배분계획

❖ 인구밀도 현황(205인/ha)

- 기결정 주거용지 면적이 121.064km²이며, 내국인 2,488천인이 거주하고 있어 평균 인구밀도는 205인/ha로 분석됨
- 각 생활권별 인구밀도를 분석한 결과 최고 높은 지역은 서대구 생활권으로 273인/ha이며, 가장 낮은 생활권은 현풍 생활권으로 53인/ha으로 분석됨
- 생활권별 인구밀도의 편차가 220인/ha로 높게 발생하고 있어 시가화예정용지 공급과 연계하여 각 생활권의 적정 인구밀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표 2-3-22] 생활권별 인구밀도 현황

(단위 : km², 인, 인/ha)

구 분	주거용지(A) ¹⁾	인구현황(B) ²⁾	인구현황밀도(B/A)	비 고
합 계	121.064	2,487,829	205	
도 심	15.041	341,914	227	
동대구	13.022	321,054	246	
칠 곡	11.010	248,529	225	
성 서	9.718	195,673	201	
현 풍	12.033	63,776	53	
서대구	12.979	355,239	273	
월배화원	14.459	361,309	249	
수 성	16.493	375,471	227	
안 심	7.834	110,911	141	
불로검단	8.475	113,953	134	

주1) 주거용지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임

주2) 현황인구는 2015년 주민등록 인구임

❖ 인구배분계획

- 목표연도인 2030년에 주거용 시가화용지는 147.152km²이며, 계획인구는 2,750천인이므로 평균인구밀도는 187인/ha로 예측됨
- 생활권별 인구밀도 배분은 평균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중심성 강화 등이 필요한 도심, 동대구, 서대구는 232인/ha로 계획하고, 안심, 불로검단은 146인/ha, 현풍은 120인/ha로 계획
- 생활권별 인구밀도지표 달성을 감안하여 생활권별 인구를 배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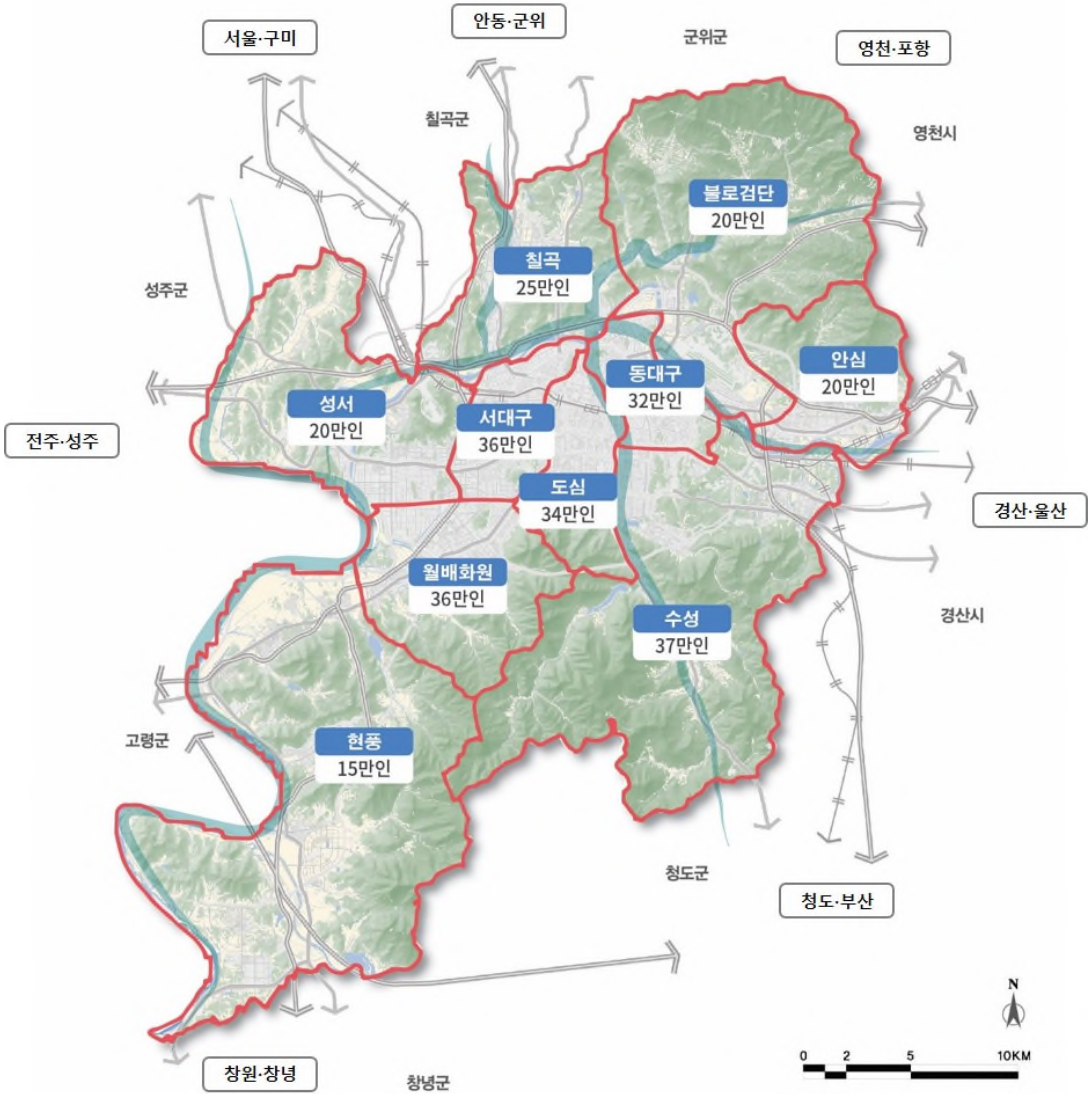
[표 2-3-23]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

(단위 : km², 인/ha, 인)

구 분	주거용지 계획(A) ¹⁾	인구밀도계획(B) ²⁾	인구계획(A×B)	비 고
합 계	147.152	187	2,750,000	
도 심	14.649	232	340,000	
동대구	13.787	232	320,000	
칠 곡	13.408	187	250,000	
성 서	10.726	187	200,000	
현 풍	12.638	120	150,000	
서대구	15.511	232	360,000	
월배화원	19.306	187	360,000	
수 성	19.840	187	370,000	
안 심	13.640	146	200,000	
블로검단	13.647	146	200,000	

주1) 주거용지 계획은 시가화예정용지 활용면적을 반영한 면적임

주2) 인구밀도 계획은 평균인구밀도를 활용하여 중심성 강화, 신시가지의 계획적 개발을 감안 설정



[그림 2-3-10]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도

다. 생활권별 발전방향

❖ 발전방향 설정 기준

- 생활권별 활용가능 자산은 현황분석을 통하여 각 생활권 특징을 도출하고, 각 생활권간의 연계 강화 및 기능 중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정함
- 광역권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를 위하여 각 광역도시들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감안한 생활권별 발전방향을 수립함

❖ 활용가능 지역자산 도출

- 생활권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활용가능 지역자산을 도출함

[표 2-3-24] 생활권별 활용가능 지역자산

구 분	시가지형성특징	활용가능 자산	비 고
도 심	• 읍성중심의 자연발생형, 토지구획정리	• 달성토성 복원, 경상감영복원, 삼성창조캠퍼스, 근대골목거리조성	
동대구	• 토지구획정리사업, 아파트지구	• 연계도시 : 서울, 부산 • 동대구KTX역세권개발, 동대구벤처밸리, 엑스코 등	
칠 곡	• 택지개발, 자연발생형	• 연계도시 : 군위, 안동 • 융합R&D특구, 농업기술원이전터개발, 도남공공주택 등	
성 서	• 택지개발, 산업단지	• 연계도시 : 성주, 김천 • 산업단지재생, 산학융합특구조성, 죽곡택지 등	
현 풍	• 택지개발, 산업단지	• 연계도시 : 창녕, 창원 •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달성테마관광단지 등	
서대구	• 토지구획정리, 아파트지구, 택지개발	• 연계도시 : 구미, 대전 • 서대구KTX역세권개발, 산업단지재생, 재정비촉진지구 등	
월배화원	•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 도시개발	• 연계도시 : 고령, 광주 • 월배도시개발, 산업단지재생, 수목원확장 등	
수 성	• 토지구획, 택지개발, 아파트지구	• 연계도시 : 청도, 부산 • 수성의로지구, 대구대공원, 문화레저클러스터등	
안 심	• 택지개발, 자연발생형	• 연계도시 : 경산, 경주 •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팔공테마관광지 등	
불로검단	• 산업단지, 자연발생형	• 연계도시 : 영천, 포항 • K20이전후적지개발, 금호워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 등	

❖ 생활권별 발전방향

- 생활권별 발전방향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용가능 자산과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설정함

[표 2-3-25] 도심생활권 발전방향

구 분	광역권	발전 방향	구 상	실행 전략
도 심	-	관광·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광역문화 거점	역사문화예술 중심의 원도심 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유산과 조화되는 생활공간 조성 • 특화된 장소를 중심으로 도시형 산업 육성 • 도심속 체험·관광형 공간 조성 • 도심 부적격 시설의 기능 전환
			문화콘텐츠 기반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산 스토리텔링 및 네트워크 강화 • 청년공연문화 육성 •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심관광명소 육성
			도심 녹지공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천과 연계된 친수공간 및 수변녹지축 조성 • 주요간선도로 경관가로축 조성



[표 2-3-26] 동대구생활권 발전방향

구 분	광역권	발 전 방 향	구 상	실 행 전 략
동대구	서울 부산	영남권의 비즈니스거점	비즈니스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산업 중심의 창조경제 활성화 금융 및 법률비즈니스 거점 육성 MICE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
			미래를 선도하는 상징공간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후적지를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미래형 교통거점 구축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간선도로 경관가로 조성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금호강 신천과 연계된 친수공간 및 수변녹지축 정비



[표 2-3-27] 칠곡생활권 발전방향

구 분	광역권	발전 방향	구 상	실 행 전략
칠 곡	군위 안동	통합 신공항과 연계되는 공항배후 거점	통합신공항 지원기능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항 연계산업 집적 공항 배후 주거단지 조성 통합 신공항과의 연계성 강화
			교육·의료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인재육성 의료서비스 향상
			녹색생활공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변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연계 강화 생태공원 확충



[표 2-3-28] 성서생활권 발전방향

구 분	광역권	발 전 방 향	구 상	실 행 전 략
성 서	성주 김천	전통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하는 산학연계 융복합산업 거점	산학연계 융복합 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계지원기능 강화 • 산업구조 고도화 • 업무·연구 복합형 역세권 개발
			광역연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철도 연계 물류기능 및 녹색교통 활성화 • 산업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도농복합지역 공간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시가화 지역의 체계적 관리 • 생활의 숲, 금호강과 연계된 친수공간 및 수변녹지축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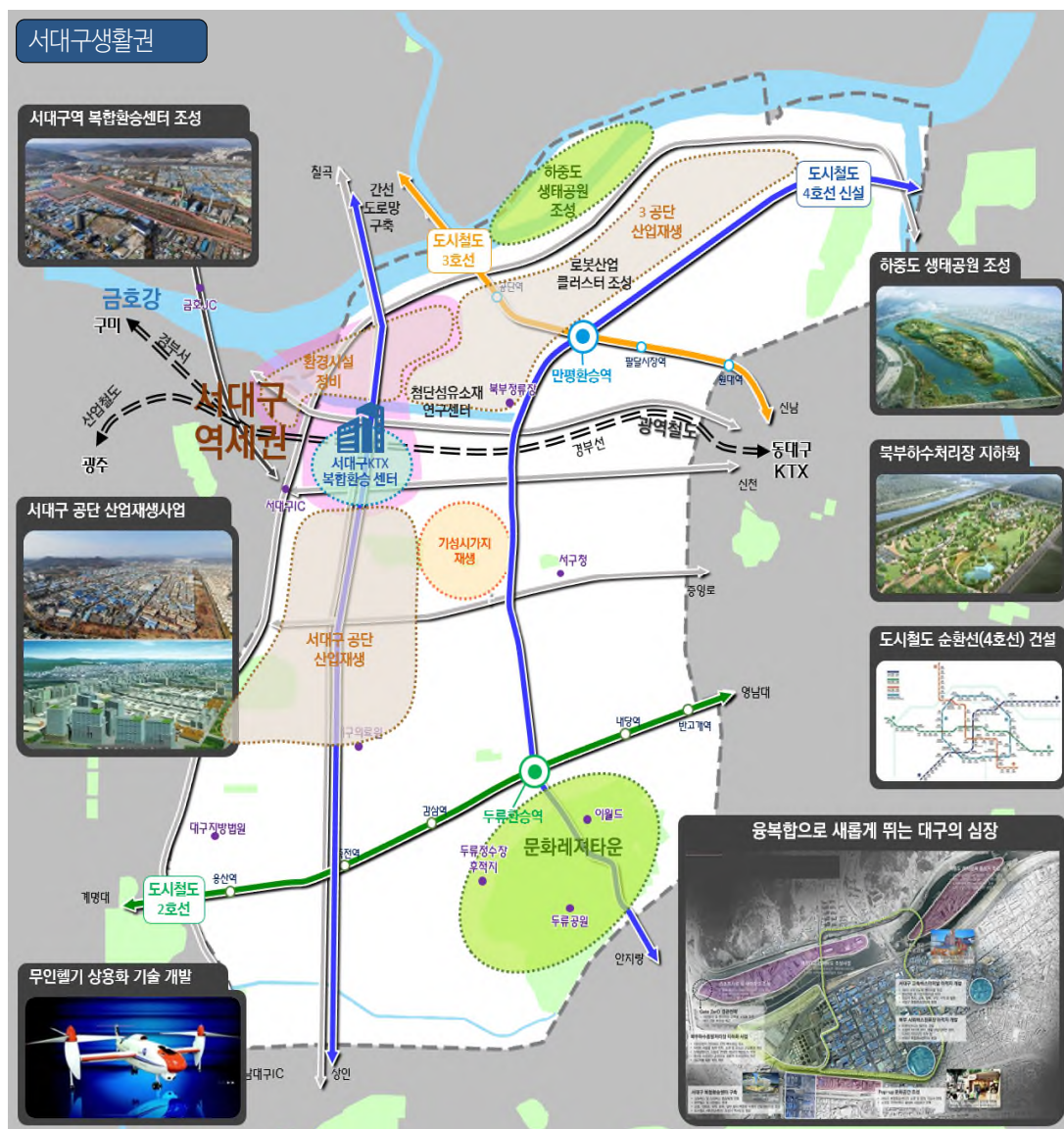
[표 2-3-29] 현풍생활권 발전방향

구 분	광역권	발 전 방 향	구 상	실 행 전 략
현 풍	창녕 창원	사람·자연· 문화를 갖춘 4차산업혁명 거점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활성화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달성공단 구조고도화
			미래형 도시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oT관련 통합기반 시설 구축 산업철도 등 광역교통 연계 강화
			자연친화형 관광자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관광자원의 발굴 및 육성 낙동강과 연계된 친수공간 및 수변녹지축 조성 지역 관광자원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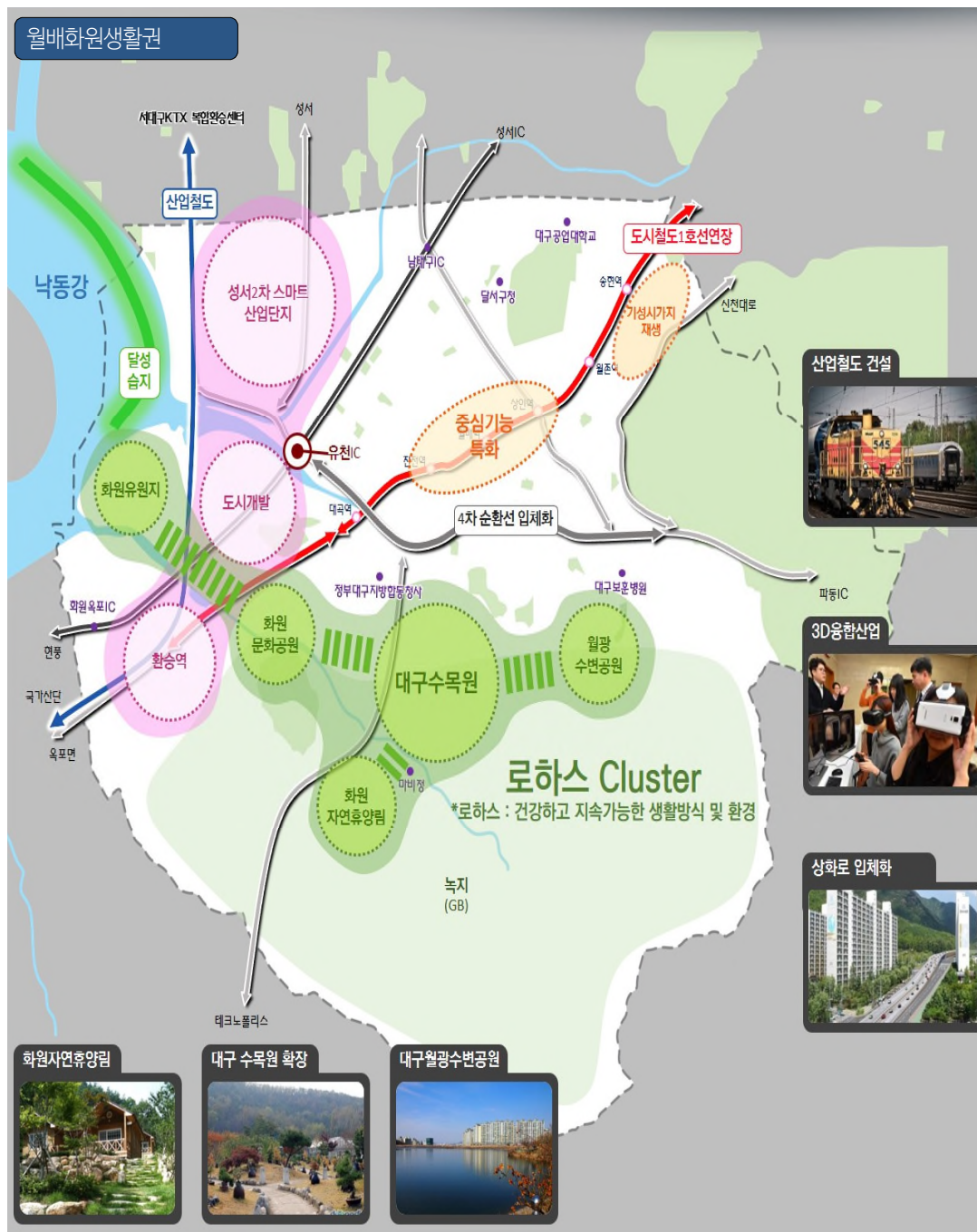
[표 2-3-30] 서대구생활권 발전방향

구 분	광역권	발전방향	구 상	실행 전략
서대구	구미 대전	세계로 열린 산업·교통 거점	서부권 Global Gate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 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 통합신공항과 연계성 강화 • 교통수단간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산업단지 환경개선 • 기성시가지 재생사업 활성화 • 생활융합산업 육성 ※ 기존 생활용품에 IT기술, 문화콘텐츠, 첨단소재, 디자인 등과 융합된 산업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관문이미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시설 정비로 관문지역 이미지 향상 • 산업단지 환경 유지를 위한 관리 강화 • 금호강, 대명천, 두류공원 중심의 문화레저공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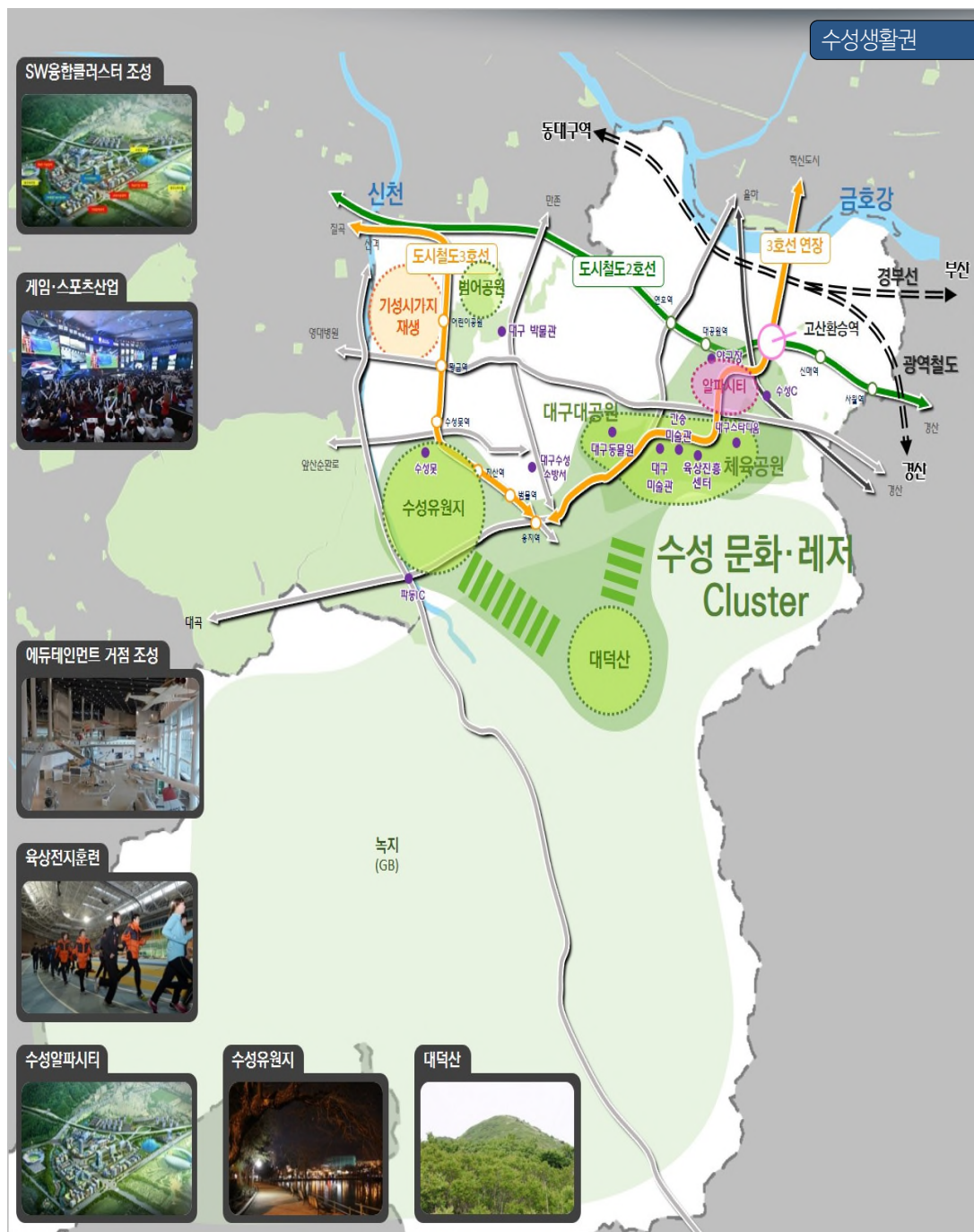
[표 2-3-31] 월배화원생활권 발전방향

구 분	광역권	발전방향	구 상	실행 전략
월 배 화 원	고령 광주	영호남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산업 거점	광역교류 촉진기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교통체계 개선(유천IC, 산업철도) • 자동차 산업 연계 기반 구축
			교통네트워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철도, 도시철도 환승역 역세권 개발 • 4차순환선 연결 도로망 정비
			문화·건강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하스 클러스터 구축 • 지역자원·문화자원의 발굴 및 육성



[표 2-3-32] 수성생활권 발전방향

구 분	광역권	발전방향	구 상	실행 전략
수 성	청도 부산	녹색공간과 문화인프라가 풍부한 문화·레저 거점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여가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성 문화·레저 클러스터 구축 체험형 레포츠 육성
			지식산업 중심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다양한 지식산업 관련 콘텐츠 발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천변 생태통로 강화로 녹색생활환경 조성 광역철도 역사 건립으로 교통연계 강화



[표 2-3-33] 안심생활권 발전방향

구 분	광역권	발전방향	구 상	실행 전략
안 심	경산 경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첨단의료산업 거점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의료 허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혁신도시 및 안심 뉴타운 활성화
			청년문화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유입을 위한 문화 중심지 육성 도시철도1호선 하양 연장
			팔공산·금호강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팔공 관광테마 클러스터 조성 금호강과 연계된 친수공간 조성



[표 2-3-34] 불로검단생활권 발전방향

구 분	광역권	발전방향	구 상	실행 전략
불로검단	영천포항	미래와 만나는 차세대 신성장 거점	미래에 대응하는 신성장 거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2이전후적지 및 주변지역 개발 • 스마트 시티 구현 • 금호워터폴리스 활성화
			교통네트워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대구~동촌간 연결망 강화 • 도시철도 확충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호강 관광자원의 발굴 및 육성 • 팔공산 관광자원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